

##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 일시 : 2013년 9월 26일(목) 13:30 - 17:00
- 장소 :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 2층 208호
- 주최 : 교육부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학회





##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한국교육과정학회와 공동으로 새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 및 확대를 도모하고자 자유학기제 포럼을 개최합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를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성찰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래의 틀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학교 교육 과정 설계가 요구되는 바, 이번 포럼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탐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9월

서 남 수 교육부 장관

백 순 근 한국교육개발원장

황 규 호 한국교육과정학회장



## ● 프로그램 일정표

시 간	주 요 내 용
13:00 ~ 13:30	등 록
13:30 ~ 13:50	사회: 신철균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연구위원)  ○ 개회식 - 인사말 : 백순근(한국교육개발원장) 황규호(한국교육과정학회장) - 축 사 : 곽병선(한국장학재단 이사장)
Session 1 13:50 ~ 14:20	○ 주제 발표 - 발표자 : 황규호(한국교육과정학회장)
Session 2 14:20 ~ 15:20	○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 발표 - 발표자 : 허은숙(경기 신길중학교 교사) 정호경(광주 동신중학교 교감) 배자영(대전 외삼중학교 교사)
15:20 ~ 15:40	휴 식(20분)
Session 3 15:40 ~ 16:50	좌장: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소장)  ○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 손민호(인하대학교 교수) - 김진숙(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표혜영(인천 부평동중학교 교감) - 이상은(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연구위원)  ○ 종합토론



# 목 차

## ■ Session 1 주제 발표

-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 1  
황규호(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

## ■ Session 2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 발표

- 의미 있는 쉼표, 교육변화의 첫걸음. 신길 자유학기제 ..... 29  
허은숙(경기 신길중학교 교사)
- Career Compass Program을 통한 재능과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 51  
정호경(광주 동신중학교 교감)
- 행복한 삶의 첫걸음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며 ..... 71  
배자영(대전 외삼중학교 교사)

## ■ Session 3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 자유학기제, FREEDOM FOR WHAT? : 교과에서 역량으로,  
역량에서 아이덴티티로! ..... 105  
손민호(인하대학교 교수)
- 자유학기제 정책과 연구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언 ..... 115  
김진숙(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에 관한 토론 ..... 125  
표혜영(인천 부평동중학교 교감)
- 자유학기제 정책의 생성, 진화, 그리고 생명의 연속성을 위한 조건 ..... 137  
이상은(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연구위원)





Session 1 주제 발표

#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황 규 호

(한국교육과정학회장)





#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황 규 호 (한국교육과정학회장)

## I. 서 론

박근혜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지난 2013년 5월 28일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42개의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지난 6개월여에 걸친 논의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기본 취지나 운영의 방향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지만 자유학기제의 핵심 의미나 구체적 운영 방안 및 예상되는 결과와 효과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관점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시험 없는 학기, 꿈을 찾아주는 진로교육(또는 진로체험, 진로탐색) 학기, ‘나’를 찾아주는 학기, 다양한 활동을 위한 학기 등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과에 대해서는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의 내용을 명료하게 설정하면서 걱정거리들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오늘의 포럼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제 포럼의 주제인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을 탐색하기에 앞서서 자유학기제(정책)의 특징과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유학기제 정책은 그 의미와 성격이 사전에 명료하게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인 실체를 갖는 교육혁신 정책이라기보다는 논의와 연구, 시범 운영 등의 과정을 거쳐 그 실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불확정적이며 개방적인

성격을 갖는 교육혁신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의 시범 운영계획(안)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의미를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로 개념화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향’과 ‘예시적 운영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운영계획(안)은 자유학기제의 대체적인 성격과 발전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학교에 어떠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는 앞으로의 시범 운영과 연구 및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불확정성은 정책의 성공적인 실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관점을 달리하면 오히려 이러한 불확정성은 정책의 유연성 측면에서, 그리고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여 실천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정책의 불확정성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망하는 교육의 이상향에 비추어 자유학기제의 가능한 실천 방안들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가는 공동의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곧 기존의 다양한 교육혁신 사례에서 경험하였던 개혁 피로감이나 개혁 무력감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 자유학기제의 기본 성격을 좁은 의미든 넓은 의미든 ‘진로교육’ 중심으로 규정하는 관점을 넘어서서 중학교 및 더 나아가 초등·고등학교 교육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혁신을 추구하는 개혁안으로 규정하는 관점이 확산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관점의 확산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본다. 자유학기제가 처음으로 소개되고 논의되었던 단계에서는 그 성격이 진로체험을 포함하는 ‘진로교육’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현재에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시범운영 연구학교의 계획서를 보면 ‘진로교육’의 요소는 거의 공통적인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연계되

어 자유학기의 가장 핵심적이며 공통적인 프로그램으로 진로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 진로(꿈)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능동적이며 자기주도적인 학습 동기 부여가 가능할 것이며, 시험 성적이나 사회적 평판도만을 고려한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이 야기하는 전공적성 불일치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분명한 진로의식은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되는 심리적 요인인 자아개념과 자아효능감 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학업적 적응 및 학교생활 적응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로교육 중심의 접근은 '학교의 변화'보다는 '학생의 (진로의식)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의 의의를 부분적이며 제한적으로 규정하게 된다는 아쉬움이 있다. 꿈과 끼를 찾아주는 진로교육도 중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포함하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학교 풍토의 변화 등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생각만 달라지면 (달라지지 않은) '학교생활의 고난'을 즐겁게 헤쳐 나갈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책임 소재 규명에 있어서나 또는 한국 교육의 발전 목표 설정에 있어서나 한계가 있다고 본다.

셋째, 자유학기제의 실천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중학교 교육과정의 틀 전체를 고려하면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실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바, 이 역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더 나아가 한국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논의라고 본다. 교육과정과의 연계 논의는 앞에서 두 번째로 검토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와 함께 교육혁신을 위한 제반 노력들을 광의의 '교육과정 혁신' 노력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의미를 폭 넓게 이해하고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교교육 정상화'의 의미는 다양한 맥락에서 규정될 수 있을 것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그것은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교육을 지칭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 논의에서 지적되는 입시위주의 교육의 병폐는 평가 문항에 대한 정답 찾기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고력의 함양이나 창의력 신장, 또는 인성 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 논의는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교육과정의 제반 영역들(예술, 체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충실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논의이기도 하며, 또는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대입 등에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교육 밖의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논의이기도 하다. 어느 경우이든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도록 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며, 자유학기제 등 교육혁신을 위한 정책들 역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그 운영 방안이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오늘의 포럼 주제를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으로 설정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 II. 자유학기제의 성격 규정과 운영의 기본 방향

글의 서두에서 자유학기제의 한 가지 특징을 목적과 성격의 불확정성, 개방성, 유연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학기제의 의미를 과도하게 진로교육 중심으로 규정하는 관점의 한계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그렇다면 자유학기제의 기본 성격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능한 답을 탐색해 보는 데 있어서는 한국의 교육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의 의미를 여러 맥락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이하 II장의 내용은 한국교육학회의 한국교육개발원 기관 발표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전재한 것임).

첫째는 교육과정의 혁신과 관련된 자유로서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을 지

원하는 교육이다. 이는 획일적인 교육과정 편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어진 과목들을 수동적으로 이수하는 현행 체제를 일부 개선하여 하고 싶은 공부를 스스로 찾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일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단위학교 수준에서 학습자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기준 단위(시수)의 20%를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이 제도를 확대·조정한다면 학생들이 20%의 증감의 주체가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증가된 시간은 교과와 연계된 다양한 활동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교과 외 학습경험의 활성화와 관련된 자유로서 ‘자유 탐구·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이다. 이는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학교 안에서의 교과 공부만을 의미 있는 공부로 간주하는 현재의 학교 교육 패러다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있다. 학생들의 소질이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을 개발하여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방과 후 활동 등을 통해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몰입’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활동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수업 및 평가의 혁신을 위한 과제로서 ‘자유로운 창의사고’를 지원하는 교육이다. 이는 정답 찾기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사고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토론 수업의 활성화, 체험 및 참여 중심의 수업 개선, 선다형 중심의 일제고사형 평가의 탈피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재미없는 공부를 벗어나서 학습의 즐거움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교실 수업 혁신 사례들을 확인하여 전파하고, 선택형 평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평가 방안의 개발과 보급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진로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과제로서, ‘자유로운 꿈’을 지원하는 교육이다. 이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 지배되는 한 줄 세우기 수직적 경쟁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에 대한 이해, 진로의

탐색과 체험 및 설계, 나의 삶에 대한 성찰과 삶의 방향 설정 등 광의의 진로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중요한 하나의 과제는 꿈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초학습 능력'에 대한 보장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특히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학생들이 실제로 자신의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철저히 길러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 풍토의 혁신과 관련된 과제로서 '자유로운 학습 공동체'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이다. 이는 규제와 인습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그 주요 과제로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 확대, 블록타임제 등 시간표 운영의 자율성 확대, 외부 평가로부터의 자유 확대 등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해 주는 것이며,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율성을 확인하여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시범학교 운영계획에는 이들 다섯 가지의 '자유'의 의미들이 부분적으로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유학기제의 운영 모형으로 예시된 모형들 중 '진로탐색 중점 모형'은 곧 자유로운 꿈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모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장기간에 걸쳐 발전시켜 온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 SCEP)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은 특히 '교육과정의 자유로운 선택'을 지원하는 교육과 관련된다. 이 운영 모형은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학생들에게 교과별 심화학습의 선택권을 허용하고 이들 시간을 이용하여 교과교육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교과별 심화학습 시간에 대한 선택 허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 등에 대해서는 선택을 지양하고 사회과나 과학과, 그리고 예술이나 체육 등의 교과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 중점 모형’이나 ‘예술·체육 중점 모형’은 교과 외 학습경험의 활성화를 위한 ‘자유 탐구·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과 관련지어 운영해 볼 수 있다. 이들 모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교과교육’과 연계된 활동들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보다는 틀에 박힌 ‘학교 공부’의 외연을 확대해 준다는 관점에서 그동안의 학교 교육에서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다양한 자율적 활동들에 대한 체험을 강조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관하여 개발해 온 다양한 활동들과 그 밖에 문화·체육 관련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활동 프로그램들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이들 활동은 교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는 교외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입’하여 학습의 즐거움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자유로운 창의사고’나 ‘자유로운 학습 공동체’의 형성은 모든 중점 운영 모형에서 일종의 인프라로 작동해야 하는 기제로 이해될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과 평가 방법의 개선, 그리고 학교 문화의 혁신은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대부분의 교육개혁에서 강조되었던 과제로서 특히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축적해 온 교수·학습 개선 및 평가 개선 연구 결과와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Ⅲ.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안

#### 1.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의 분석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먼저 지난 2013년 5월 말에 발표된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영계획(안)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안으로서 ‘학생의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 확대’,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오는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학생의 참여와 활동 중심으로 교수·학습방법 다양화’,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평가방법 마련’ 등 다섯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 방안들은 자유학기 기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안점이나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영계획(안)에서는 자유학기 운영의 예시적인 기본모형으로서 진로탐색 중점 모형,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 동아리 활동 중점 모형, 예술·체육 중점 모형 등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들 모형은 어느 하나를 중점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진로탐색 + 예술·체육 중점 모형’, ‘진로탐색 + 동아리활동 중점 모형’ 등과 같이 연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운영계획(안)에 제시된 운영 방안이나 운영 모형에 대하여 제기되는 한 가지 의문은 이들 여러 ‘방안’들이나 ‘모형’들의 의미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먼저 ‘방안’의 측면을 보면, 여기에 제시된 항목들은 자유학기 교육과정이 공통적으로 동시에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명시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유학기 교육과정에서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확대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되, 이를 체험·참여형으로 운영하며, 동시에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학교들은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들 운영 방안들은 (첫 번째로 제시된 ‘진로탐색의 기회 확대’ 지침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자유학기만을 위한 방안이요 지침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 급별 공통사항’에 제시되어 있는 ‘편성·운영’ 지침 및 ‘평가 활동’ 지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자유학기 기간 중의 교육과정 역시 중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전체 교육과정의 틀을 따라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자유학기 기간 중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하기에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자유학기 기간 중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자유학기 운영 모형(예시)'과 그 운영 모형의 적용 예시 사례들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운영계획(안)에 예시된 네 가지 모형들의 상호 관계이다. 비록 운영계획(안)에서는 일부 모형들을 혼합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예시해 주고는 있지만 제시된 적용 사례들을 보면 각각의 모형들은 상호 독립적인 병렬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진로탐색 중점 모형,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 동아리 활동 중점 모형, 예술·체육 중점 모형들은 동등한 지위에 놓여 있는 선택지들을 나열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병렬적 관계로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범주의 오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모형의 명칭 중 일부는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질 학습 경험의 영역을 지칭하고 있으며(진로탐색 활동, 예술·체육활동 등) 일부는 프로그램 운영의 시간을 지칭하고 있다(동아리 시간). 또 다른 명칭은 학생의 선택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을 명시해 주고 있다. 요컨대, 운영 모형의 특징을 요약해 주는 '이름'들이 프로그램의 상이한 여러 '측면'(또는 dimension)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측면의 특징만을 지칭해 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하나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여러 측면들(운영 시간 확보의 측면과 학습내용 유형의 측면 등)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영 시간은 동아리 활동을 이용하되 그 활동의 세부 내용은 예술·체육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진로 탐색 관련 활동이 될 수도 있으며, 모형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과학탐구 활동 등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동아리 활동 모형'과 '예술·체육 모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수 없는 관계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아리 시간을 이용한 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선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차원에서의 공통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학생 선택 여부는 운영 시간 확보나 학습 내용의 측면과는 상이한 차원의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운영 모형의 명칭이나 또는 차원의 다양성이 야기하는 이와 같은 혼란은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함은 물론 대안적인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고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술·체육활동이나 또는 진로탐색 활동만이 아니라 과학 탐구활동, 역사·정치·경제·사회·문화·지리 탐구활동들도 자유학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동아리 활동 시간만이 아니라 자율활동, 봉사 활동 등을 통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 더 나아가 교과교육 시간을 통해서도 진로탐색 활동을 포함하는 다양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학생의 선택은 특정한 독립적인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에서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의 운영은 물론 교과교육의 운영에서도 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운영계획(안)에 제시된 모형의 유형들이 야기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운영 모형의 유형 구분 기준과 명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자유학기 중에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가능한 유형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고, 또한 각각의 유형들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2.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 분석

이 절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연구학교들의 운영계획서에 나타난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특징들을 (1)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간 확보, (2) 시간표 편성, (3) 학습활동의 내용 유형, (4) 기본교과 교육 계획 등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 가.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 확보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연구학교(이하 연구학교)들은 자유학기를 위한 자율과정 운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교과’ 시수 감축, 진로 관련 선택 과목 개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재구성, 방과 후 학교 및 토요프로그램 활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1) 기본교과 시수 감축

연구학교들은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운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교과 시수를 감축하고 있다. 학교마다 기본교과를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sup>1)</sup> 대체로 주당 평균 21.3시간을 기본교과 수업으로 편성하고 그 외의 시간인 주당 평균 12.2시간을 자유학기를 위한 자율과정 운영을 위한 시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가 기본교과 시수를 감축하되 학생들의 학력 저하 및 학습 결손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 2) 선택 과목 개설,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 후 학교, 토요프로그램 활용

대부분의 연구학교는 기본교과 시수를 감축하는 것 이외에 선택 과목 중 <진로와 직업>을 신설하여 진로교육 시간을 확보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자율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 <진로와 직업> 과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거나 신설하는 연구학교는 2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42개교 모두가 창의적 체험활동을 재편성하고 있었지만 학교마다 구성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부 학교들은 기존에 편성되었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줄여 자율과정으로 전환하고자 하였고, 일부 학교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모두 ‘자율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학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자유학기 기간 중에 집

1) 많은 학교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제외한 과목들을 기본교과로 분류하고 있으나, 예술, 체육 과목을 기본 교과에서 제외하는 학교도 있고, 선택과목을 기본 교과에서 제외하는 학교도 있다.

중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창의적 체험활동 집중 이수제). 또한 42개교 중 절반 이상의 학교들이 자율과정과 관련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학교들은 주중 방과 후 학교뿐만 아니라 토요일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자율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면제되는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간 역시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나. 자유학기의 시간표 편성

자유학기 기간 중의 시간표 편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연구학교들은 교육부의 운영계획(안)에 예시된 시간표 적용 방안을 수용하여 오전에 기본교과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 시간을 자율과정에 할애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학기 중 2회 이상은 전일제 체험활동 진행을 통해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연구학교는 자유학기 동안에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또는 기관에서 '전일제 진로체험' 또는 '진로캠프' 등을 학교별로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학교들은 2-3학년 정기고사 기간(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이나 또는 진로체험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자유학기 중 2회 이상의 전일제 체험활동을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한편 매 주 전일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학교도 일부 있었는데, 이런 학교들은 일주일에 하루 자율과정을 운영하는 대신 다른 날에 기본교과 수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기본교과 시수의 손실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일부 학교의 경우는 '기본교과'의 수업 시간표에도 일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블록(BLOCK) 타임제의 도입이 가장 일반적인 변화의 사례가 된다.

#### 다.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앞에서 검토한 두 가지 항목(운영 시간 확보, 시간표 편성)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외형적 틀을 짜는 일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항목이 확보된 시간을 통해 어떠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연구학교의 자율과정의 내용은 교육부의 자유학기 운영 모형에 따라 크게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선택프로그램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든 연구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머지 3개의 프로그램 중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와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외한 3개 프로그램 중에서는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선택프로그램 순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 1) 진로탐색 프로그램

42개 연구학교가 모두 시행할 예정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은 크게 교내·교외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내 프로그램은 교과 내 진로연계 수업, 선택과목 <진로와 직업>을 통한 진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내 진로 활동 강화, 방과 후 학교에서의 직업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교과 내 진로연계 수업은 진로독서 등 기존의 교과교육에 진로교육을 결합한 형태의 수업이다. 교내 프로그램은 교과 담당 교사가 진행하는 학급별 집합교육, 전문가 초청 등 외부인사 활용 수업, 모의 진로 박람회 등 학생 중심 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외 프로그램은 대체로 전일제 시행일에 현장 진로 체험, 진로 캠프 및 수련회 등을 통해 운영된다. 현장 진로 체험은 주로 학부모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직업 체험, 지역 대학 및 고궁, 박물관 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질 계획이다.

### 2)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은 자율과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활동 영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교육부 예시 프로그램대로 문예토론, 라인댄스, 벽화제작, 과학실험,

웹툰 제작, UCC 제작, 천체관측 등의 동아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동아리 활동에 진로교육을 결합시켜 진로 체험 및 탐색을 할 수 있는 진로동아리를 운영하거나 예술·체육 활동을 강화한 동아리 활동이나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 3) 예술·체육 프로그램

예술·체육 프로그램은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과와 연계된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중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한 특기·적성 계발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예술 분야의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전문 강사 인력을 확보하여 교내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지역 사회 축제·미술관 방문·음악회 관람 등 교외에서 진행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체육 분야에서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활성화, 리그대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 4) 선택프로그램

42개교의 연구학교들 중 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한 학교의 수가 가장 적기는 하지만, 절반 이상의 학교가 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가 예시로 제시한 선택프로그램의 내용은 창조적 글쓰기, 한국의 예술 발견하기, 미디어와 통신, 학교잡지 출판하기, 드라마와 문화, 녹색학교 만들기, 농림수산 체험활동, 미니컴퍼니 경영, 바리스타, 요리 실습, 우리역사 바로알기, 자유주제 연구, 패션 디자인 등이다. 선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를 통해 위 선택프로그램 중 몇 가지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는 선택프로그램(진로), 선택프로그램(동아리), 선택프로그램(예·체능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 앞의 프로그램들과 중복되는 경우도 많았다.

## 라. 자유학기 기간 중의 ‘기본교과’ 교육

자유학기 기간 중의 ‘기본교과’ 교육의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중요한 관심사요 과제이다. 연구학교들은 기본교과의 시수 감축에 대응하여 이를 핵심 성취기준 기반 수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과에 특성에 맞는 참여·활동 중심 교육 강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블록(BLOCK) 타임제 도입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기본교과의 운영에서는 특히 진로교육 연계교육을 일정 부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 3.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안

이 절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에 대한 분석 결과와 연구학교들의 운영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방안에 대한 대체적인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가.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의미

자유학기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은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즉,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는 것이 어떤 일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일을 위한 의사결정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앞의 2절에서 연구학교의 운영계획을 분석하는 가운데 분석의 항목을 (1)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간 확보, (2) 시간표 편성, (3) 학습활동의 내용 유형, (4) 기본교과 교육 계획 등으로 구분한 바 있는데, 이들 분석 항목들은 곧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의사결정 과제의 범위와 내용을 예시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가능한 선택지를 확인하고 각각의 선택지들에 대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결과가 곧 자유학기 교육과정의 대체적인 윤곽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학기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이나 기본 모형을 탐색하고 구안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과정’의 의미에 대한 관점의 차이나 또는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에 따라 의사결정의 핵심 과제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를 것이지만, 교육과정을 학교 교육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으로 간주하는 관점을 따르자면 시간의 확보 및 시간표의 편성 방안,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방안 등이 중요한 의사결정 과제로 부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 자유학기 프로그램 담당자, 프로그램 운영의 장소, 자유학기 프로그램에서의 학생 성취도 평가 방안, 프로그램의 평가 방안 등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제들에 대한 가능한 선택지들을 확인하고 이들 선택지들의 가능한 조합의 유형들을 확인한다면 이를 통해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기본 모형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떤 의사결정 과제들을 핵심적인 과제로 보는가에 따라 결과로 나타나는 모형의 형식이나 유형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먼저, 고려 가능한 의사결정의 과제와 각각의 의사결정 과제에 대한 가능한 선택지들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확보

- 독립적 운영 시간의 확보: 교과 시간 감축,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전환, 방과 후 및 토요일 활용, <진로와 직업> 교과 개설 등을 통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확보 (<진로와 직업> 교과 개설은 기본교과 시간 활용 사례로 볼 수도 있음)
- 기본 교과별 수업시간의 일부 시간을 이용한 운영 시간 확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정규 교육시간의 일부 시간에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 기본 교과의 통합 운영을 통한 운영 시간 확보: 교과의 통합(예: 음악과 국어시간의 통합을 통한 뮤지컬 극본 작성과 공연)을 통해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일부를 이용한 운영시간 확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동아리 활동 시간에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 진로 탐색 영역: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SCEP : 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 운영, 진로 적성 검사 및 자기이해 활동, 직업세계 유형 이해 활동 등
- 예술 영역: 다양한 예술 분야의 활동
- 체육 영역: 다양한 체육 분야의 활동
- 인성 및 봉사 영역: community service learning 프로그램 등
- 교과 관련 탐구 영역: 문학, 수학, 과학, 역사, 사회, 지리 등에서의 심화 학습 활동, 개인별 연구 활동 등

○ 교수학습 방법

- 체험 활동: 실험·실습 활동, 현장 방문 및 체험 활동 등
- 프로젝트 탐구 활동: 개인 연구 활동(R&E), 팀 프로젝트 활동 등
- 조사 및 토론 활동: 개인별·팀별 조사활동, 토론 활동 등

○ 기타 의사결정 과제

- 시간표 편성의 방안: 전일제 vs. 오후 시간 활용; block time제 도입 여부 등
-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포트폴리오, pass-fail, 서술식 평가 등); 교과 학습에 대한 성취도 평가(수행평가, 서술식 평가 등)
- 자유학기 프로그램 평가: 심리 검사 등에 의한 학생의 변화(자기주도성, 진로 성숙도 등) 추이 분석,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 교사의 수업방식 변화에 대한 자기 평가 등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 프로그램 운영의 담당자: 교과 교사, 담임교사, 전담 교사, 외부 강사 등
- 프로그램 운영의 장소: 학교 내, 학교 밖 등
- 자유학기 기간 중 '기본 교과' 운영 방안 (기초 학력 보장 방안 등)

이상에 예시된 각 과제들 중 어느 과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유형들을 구분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이들 중에서 운영 시간 확보 방안과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자유학기 프로그램 유형의 모형을 2차원의 표로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 만일 교수학습 방법의 측면을 추가한다면 3차원의 육면체 모형을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유형(예시)

내용영역		창의/융합 탐구 활동	예술 문화 활동	체육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인성/봉사 활동	비고
운영시간		• 선택적 탐구 활동	• 방과후 예술·문화 활동	• 주말 스포츠 클럽 활동	• 진로교육 프로그램(〈진로와 직업〉) • 진로체험	• 주말·방학중 봉사활동	• 별도 시간 확보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
독립적 운영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일부 또는 전부)		• 과학동아리 • 개인연구 활동 • 팀 프로젝트	• 예술동아리 • 교외예술 활동	• 체육동아리	• 진로 탐색 동아리	• 봉사활동 • community service learning	• 창체 시간 등을 이용한 자유학습활동
교과 교육 시간	개별 교과 시간	• 교과별 탐구 수업활동 • 과학(과학관 체험활동) • 역사(유적지 탐방)	• 음악(뮤지컬, 감상) • 미술(창작, 국어(문예창작, 드라마)	• 체육(1인1기)	• 교과별 진로 탐색 활동 (진로 작문, 인터뷰, 조사 발표 등) • 미술(큐레이터 진로탐색)	• 도덕시간을 이용한 인성 교육	• 교과별 수업 개선 및 체험 활동 다양화
	교과 통합	• 통합교과형 탐구수업 활동	• 예술중점 통합교과 • 영어 연극, 뮤지컬 발표	• 음악과 무용 창작	• 범교과 진로 탐색활동	• 통합교과형 인성교육 등	• 통합교과 프로그램 개발 • 창의재단 프로그램 활용

## 나.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 시간 확보에 대한 대안적 접근

자유학기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고민하게 되는 한 가지 과제는 운영 시간의 확보이다. 즉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학교의 입장에서는 가장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운영 시간 확보 방안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시수 확보를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현행 교육과정 운영 시수(교과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중 일부 영역의 시수를 감축하고 감축된 시간을 이용하여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교과교육을 압축하여 실시하고 오후 시간에는 각 교과나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서 십시일반으로 할애 받은 시간을 편성하여 다양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접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느 교과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차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교과 간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기본 교과'에 대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고려할 때 진도 나가기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성취도 평가와 무관한 교과나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상당 부분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시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기본)교과교육에 대해서는 시수 감축 이외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덧붙인다는 점에서 '덧붙이기 식 접근'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운영의 용이성은 장점이 될 수 있으나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유학기 이외의 학기에서는 창체 시간 등이 줄어들거나(창체 집중이수?) 또는 교과 수업에 있어서도 자유학기 중에 나가지 못한 진도를 서둘러서 나가야 하는 관계로 더욱 불행한 학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덧붙여진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을 누가 담당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그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서 기존의 시간표를 그대로 운영하되, 교과교

육 시간이나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의 운영 방식을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하여 혁신을 도모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교과교육 시간표에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덧어쓰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과별 핵심 학습내용을 프로젝트 식 수업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체험활동 경험이나 창의적 사고의 경험을 확대하는 것이다. 요컨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과 교과교육과정이 통합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덧어쓰기 프로그램은 개별 교과 수준에서 운영될 수도 있고, 가능한 경우에는 여러 교과들이 협동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교과에서도 덧어쓰기 식 접근이 가능할 것이지만 일단은 음악, 미술, 체육 등의 교과부터 시도해 볼 수도 있다.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 시간(동아리 활동 시간, 선택교과 시간 등)이나 또는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시간을 이용하여 덧붙이기 식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덧어쓰기 식 접근의 강점은 시수 확보를 위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수업 혁신의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이 일부 전담 교사만의 과제가 아니요 모든 교사들의 공동적인 과제가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어려움은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교의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덧어쓰기 식 접근의 한 가지 의의는 이 접근이 자유학기제의 기본 성격에 대한 관점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의 II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자유학기제의 기본 성격은 단순히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이제까지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은 활동 프로그램을 부가적으로 운영하는 학기로 제한되어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자유학기제는 학교 교육에 대한 종합적 혁신을 위한 정책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 기간 중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 학습 활동의 다양화 등 총체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가 되어야 한다. 즉, 학교 교육과정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교과교육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덧붙이기 식 접근은 이와 같은 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접근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교과 교육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압축하여 운영하되 특별한 프로그램을 부가적으로 추가한다는 식의 사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유학기제를 통해 이와 같은 학교교육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무엇을 추진력으로 삼아 이제까지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혁신을 이루지 못한 학교 교육의 혁신을 실천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와 회의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와 회의는 정당하다고 본다. 예산 지원이나 인력의 지원, 또는 시설의 개선이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근본적인 여건의 변화 없이 오직 '자유학기제'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만으로 학교 교육 혁신을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자유학기제 운영의 기본 방향의 설정에 있어서는 모든 교과교육에 대한 혁신을 그 중요한 관심사요 추진 과제로 인식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모든 학기의 수업을 일거에 바꾸는 것은 어렵겠지만, 하나의 학기를 중심으로 하여 가능한 방안들을 탐색하고 시도해 본다면 이것이 하나의 진양지가 되어 학교 교육의 변화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여건의 개선과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IV.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향후 과제

이제 끝으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과 지원체제의 구축 과제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자유학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큰 우려의 하나는 이 제도가 '기본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이다. 우선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교과별 교육과정에 제시된 '진도'를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걱정과 염려가 따르게 된다.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일정 시수를 감축하거나, 교과별로 자유학기형 수업(프로젝트 수업 등)을 운영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양과 수준의 과다 현상'에 의해 교사를 바쁘게 만들어 온 '진도 맞추기'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교육부에서는 '핵심 성취기준'의 개발을 통해 '양과 수준'의 적정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과정 조정이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가 오히려 사교육 부담을 키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염려하기도 한다. 대학 입학 등에서 필요한 기초학업 능력의 수준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자유학기의 운영과 학교의 학습량 감축에 따른 결손을 사교육을 통해서라도 보충해야 할 것이라는 전략을 세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들과 관련하여, 우선 '핵심 성취기준'의 재조정 방향에 대하여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학습 내용의 양적 감축(즉, 일부 학습 내용을 덜어내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습 내용의 기본 성격의 명료화(즉, 핵심 개념과 원리 중심의 교육내용 선정)와 내용들의 조직 방식의 변화(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등의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진도 나가기 바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 학습량의 절대적 양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단편 지식 중심의 내용 구성이나 연계성의 미흡 등이 더 근본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 핵심 성취기준의 재조정 작업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교과별 학습 내용의 수준을



과도하게 낮추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교사의 수업 운영 측면에서는 자유학기 프로그램이나 또는 자유학기형 수업 운영이 반드시 '진도 나가기'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즉, 자유학기 프로그램이나 자유학기형 수업을 '진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교사 개개인의 수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자유학기 지원센터나 교육과정 평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자유학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교과 통합적 프로그램의 개발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과 사이의 협력을 통해 교과 및 교사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학교와 학교 밖의 프로그램 사이의 경계, 더 나아가 교사와 사회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 사이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자유학기제를 학교 교육 혁신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일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고는 하지만 학교 입장에서 보면 정작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율성은 각종 실적 보고 등의 제약에 의해 충분히 부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우선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학교가 필요로 하는 자율성의 내용과 그 범위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업성취도 평가나 고입제도 등 외부 평가로부터의 압력에 대한 대책 수립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인력의 지원이나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비록 재정 지원만으로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을지라도 재정 지원 없이 오로지 교사의 '사명감'에만 의존하여 학교 교육의 변화를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추구하고자 하는 변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제와 인프라의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와 교사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하였던 ‘요란한 빈 수레의 교육개혁’으로 그칠 위험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로, 연구학교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자유학기 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 지원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미 자유학기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이와 같은 노력이 실천되고는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와 운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해결 방안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조언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학교들 상호간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구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내용과 효과, 교과 교육의 변화를 위한 노력들, 성취도 평가 및 프로그램 평가의 방법 등등에 대하여 단기간의 효과와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평가 및 사례발표회가 아닌, 학교 교육 혁신을 위한 개선 과제들의 ‘어려움’과 그 극복 방안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의 구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경험과 걱정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곽병선(2013).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교육정책포럼 제235호(2013. 1. 10),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2013).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 행복교육을 실현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안).
- 김현철(2013).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소개 및 정책적 시사점. 교육정책포럼 제 237호(2013. 3. 10), 한국교육개발원.
- 윤여복(2013).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로 본 「자유학기제」방향. 교육정책 포럼 제237호(2013. 3. 10), 한국교육개발원.
- 이광우(2013). 꿈과 끼를 살려 주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편성·운영을 위한 시론. 교육정책포럼 제237호(2013. 3. 10), 한국교육개발원.
- 이명호(2013).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언. 교육정책포럼 제237호 (2013. 3. 10), 한국교육개발원.
- 이지연(2013).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진로탐색 중심의 선결과제. 교육정책포럼 제237호(2013. 3. 10), 한국교육개발원.
- 이지연(2013). 자유학기제의 성공 조건. 한국경제(2013. 03. 05)
- 이지연(2013). 한국의 자유학기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진로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 활성화 방안 모색. 제2회 진로교육 국제포럼 발표자료집. 173-192.
- 최상덕(2013). 자유학기제 도입, 그 취지와 방향. 교육정책포럼 제237호(2013. 3. 10),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덕(2013). 자유학기제, 행복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토대가 되어야. 헤럴드 경제(2013. 2. 26)
- 한국교육개발원(2013). 자유학기제 실행 방안. 포지션페이퍼, 10(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3). 꿈과 끼를 살리는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 미간행 보고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방안. 미간행 보고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 연계. 미간행  
이슈페이퍼.  
황규호(2013). 자유학기제 운영의 방향. 한국교육학회 편(2013).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과 과제. 2013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KEDI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3-13.

# 의미 있는 심포, 교육변화의 첫걸음... 신길 자유학기제

허 은 숙  
(경기 신길중학교 교사)





# 의미 있는 선포, 교육변화의 첫걸음.

## 신길 자유학기제

허 은 숙 (경기 신길중학교 교사)

### I. 교육 변화에 대한 공감대

본교는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공단지역에 위치하고 1학년 8학급, 2학년 8학급, 3학년 7학급으로 총 23학급의 규모이며 학력수준이 높지 않은 학교입니다.

공단지역에서 일하는 맞벌이 젊은 부부들이 많고, 부모들의 학력은 높지 않으나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바른 인성을 갖추고 긍정적인 학교생활을 하며, 사회문화적 경험이 적고 주변에 사교육 시설이 그리 많지 않아 학생 학부모 모두 공교육의존도가 높습니다.

본교에 부임한 교사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교사의 교육적 의도에 맞게 긍정적으로 따르는 모습에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이 높아지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변화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며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부 정책연구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접하게 되면서 고민해 왔던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렇지만 혁신적 교육 정책에 대한 외부의 시선 및 평가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며 이유 있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본교의 교사들도 교육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철저한 준비 없이는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생각에 긴장을 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단계에서 신길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했던 내용과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학교차원의 발걸음을 5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선진국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교육부에서 협약기관을 체결하였지만 현실적으로 학교의 사정에 맞게 매칭 하여 교육과정 속에서 활용하는 데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 등으로 어려움이 많고 사회적으로 기업이나 단체 및 개인의 재능기부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위 학교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교는 교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맞춤형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에는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향후 지역사회 모두가 학교와 함께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여 학생 행복교육을 책임지도록 하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뜻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모았습니다.

둘째, 사교육 및 선행학습을 위한 공교육 공백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사교육에 의지한 학생들이 수준별로 상수준의 학생들은 현재의 공교육에서 흥미를 못 느끼고, 중수준의 학생들은 진정한 학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수박 겉핥기식 시간 때우기로 허송세월을 보내며, 하수준의 아이들은 너무 일찍부터 학업을 포기하고 학업 이외의 다른 전 영역에서 자신의 장점을 확인 할 기회도 없이 자존감을 잃어 가는 공교육 현실은 더 이상의 무너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느끼는데, 학부모님들께서는 한 학기 지필평가의 부담이 없고 서열식 성적 산출을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하셨습니다.

본교는 동기부여 없는 선행학습으로 눈 앞의 불이라도 끄겠다는 마음으로 학원을 돌며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께 가정통신문, 담임선생님 및 진로담당 선생님의 상담, 학부모 설명회등의 형태로 교육 변화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보다 여유 있는 마음가짐으로 '나를 찾고' '꿈을 꾸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길러 자유학기 이후 학교 생활에 보다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임을 약속 드렸습니다.

상수준의 학생들에게는 또래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을 키우면서 배움을 나누어 주는 기쁨을, 중수준의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과 공



부하는 이유 등에 대한 자기 주도적 생각의 힘을, 하수준의 아이들에게는 모르고 부족한 것을 배우려는 노력이 부끄럽지 않은 것임을 알게 하고 장점을 찾게 하여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는, 배움 중심 협동학습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 재구성을 통해 핵심 성취기준 기반 수업을 함으로써 부모님들의 우려에 대하여 부지런히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중1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한계를 고려했을 때 진로체험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고민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직업적 진로 탐색의 시기로만 이해했을 경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직업이나 선호하게 된 이유 등을 생각했을 때 향후 진로에 대한 꿈이 일부 좌절되거나 실패의 경험을 하는 과정을 거쳐 가는데 있어서 다른 대안 등 긍정적 상황주도력을 갖추는 것 까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 선호 직업군에 대한 직업 탐색에 있어서 전학이나 특강 수준의 체험을 통해서도 이전보다 좀 더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알고 배우는 기회는 되겠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성숙한 진로의식을 갖추어 나가기 어려우므로 본교에서는 '직업' 자체보다는 직업인의 삶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소규모 단위의 접근을 통해 보다 가까워서 클로즈업 된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듣고 가슴으로 느끼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학교 근처 선생님들이 자주 가시는 소박한 카페, 학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떡집, 삼대째 손두부로 유명한 음식점 등..철학이 있고 교육적 마인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곳곳이 모두 체험의 장이 되어 직업체험의 날 소규모 체험도 하고, 그 경험과 인연을 계기로 때로는 학생들이 오고 가는 길에 편하게 쉬어도 가면서 한마디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사춘기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교육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교사와 더불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시도록...그렇게 진로 교육의 방향을 더 크게, 더 넓게 잡고 실천할 것입니다.

넷째, 유동적 수업공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생활지도상의 공백과 안전

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체험활동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활동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아직은 초등학생 티를 다 벗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시기이므로 여러 가지로 생활지도 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1차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생활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체험활동을 나가거나 교실 이동 등을 할 경우 모듈별 조장을 통한 비상연락망을 조직하며 이동거리에 부담이 있는 경우와 전일제 진로체험기간에는 반드시 학부모 지원단과의 매칭을 통해 안전하게 운영하며, 사고 보험 가입을 통해 학부모님들께서도 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학생부차원에서 상별점 제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자유학기에 행복한 경험을 많이 하되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생활하게 하며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유학기를 노는 학기로 착각할 수도 있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성찰교실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정책 연구학교로서 자유학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 방향을 고민했습니다.

그동안의 여러 교육정책에 대한 실패를 떠올리며 이번에도 이벤트성에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많았지만 본교는 자유학기제의 근본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하여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며 꼭 성공한 정책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을 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학교들이 전통적 주요교과라 할 수 있는 국영수 중심의 시수 운영을 하면서 다른 교과의 시수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결국 학업부담의 큰 원인이었던 주요교과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 두고 다른 교과의 정체성을 잃게 하며 중등 교원 수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통합교육을 지향해야 하는 시점에 자칫 시대에 역행하는 교과 이기주의를 야기 시킬수도 있겠다는 판단으로 본교에서는 국영수와 등 주요 교과의 시수를 줄이면서 시수를 감축한

교과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교과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기본 교과 시수 변동이 있더라도 교육내용 재구성을 통한 핵심성취기준 기반 수업을 통해 프로젝트, 협력학습, 실험실습 등의 방식으로 체계적 진행을 할 경우 각 교과별로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학생들의 정의적 영역의 성장을 함께 기대하면서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2〉 기본교과 수업시수 변동

과목	본시수	감소시수	자유학기제 운영 2학기 예정 시수
국어	4	-1	3
영어	4	-1	3
수학	4	-1	3
과학	4	-1	3
도덕	3	-1	2
한문	1	-1	0
합계	20	-6	14

기본교과의 시수변동에 따른 교과별 교육 내용 재구성을 필수적으로 하고 평가 계획또한 마련하여 학생들의 성취수준 도달도를 확인하면서 피드백을 하며 프로젝트 수행시 자기성찰평가 및 동료 평가 등을 하도록 하면서 모둠 활동 역할분담 및 수행에서 협조적 자세를 배우도록 합니다.

〈표 3〉 프로젝트 자기평가 및 모둠 내 동료 평가지 예시

구분	평가항목		평가 (매우미흡:1 미흡:2 보통:3 우수:4 매우 우수:5)					
			1	2	3	4	5	
자기평가	지식 (인지적 영역)	프로젝트를 통한 수학적 성취수준 도달도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이해 및 활용도						
	태도·흥미 (정의적 영역)	모둠 구성원들과의 공감 및 호응도						
		준비 및 발표과정에서의 기여도						
	합계							
동료평가	태도·흥미 (정의적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팀의 친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협동하며 프로젝트 학습에 참여하였습니까?</li> </ul> <p>모듬원을 중심으로 기록하세요.</p>	이름	평가				
				1	2	3	4	5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나의 느낌과 제안 점								

〈표 4〉 프로젝트 모듈별 동료 평가지 예시

평가자															
학번						이름									
모듈별 발표															
모듈명															
발표자															
평가 (매우미흡:1 미흡:2 보통:3 우수:4 매우 우수:5)															
항목/평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발표준비도															
내용정리 및 보충자료															
발표 전달력															
총점															
FEEDBACK															
장점 + 핵심내용															
보완되어야 할 점															

〈표 5〉 선택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주당시수	운영시간	비고
선택1(교과연계)	3	수 5,6,7교시 블록타임	학생 수요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선택2(진로적성선택)	3	목 5,6,7교시 블록타임	

시수가 감소된 교과외의 경우 선택1에서 교과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 희망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선택1 교과연계 프로그램의 경우 교과전공 교사가 교과서 외의 수업 내용을 계획 및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긴 했지만 부족함이 있더라도 역량 개발을 시도하여 변화해야만 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사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다소 도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표 6〉 선택1 프로그램-교과연계

프로그램명	담당 교사	프로그램 개요
다문화, 광고로 만나는 국어의 모든 것A	천세훈	▶말하기, 쓰기와 같은 표현 활동을 위해서는 읽기, 듣기와 같은 이해 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전체 17주 동안 2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언어 사용 능력의 총체적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다문화, 광고로 만나는 국어의 모든 것B	황지윤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에 비해, 소수의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신감 있게 표현 활동에 임할 수 있으며, 매 주마다 나타나는 결과물을 클리어파일에 모아서 쓰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수행 및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스토리로 만나는 영어A	이영교	▶영미 청소년 문학작품을 읽고 활동을 통하여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Reading Portfolio를 만들어 보는 동시에 영어독서의 습관을 익히고 영어독서의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 ▶Poetry를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해보며 영어로 시를 써보는 경험을 해보며 친구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영어의 자신감을 키운다. ▶Picture Story와 UCC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하여 직접 스토리를 만들고 성취감을 느끼도록 한다.
스토리로 만나는 영어B	백승수	▶영어권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문화와 언어 소개를 하여 글로벌 관심을 유도한다.
Prism 수학A	이재국	▶타 교과 프로그램과의 융합을 통하여 수학적 재발견과 통합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며 진로요소를 추출하여 수학과 관련된 직업을 탐구하고 수학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Prism 수학B	반은경	▶실생활과 연계한 체험수학을 통해 수학의 유용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하여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 태도 개선을 유도하고 자신감을 갖게 한다.



프로그램명	담당 교사	프로그램 개요
흥미로운 사회 탐구반	정수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사회 교과 지식이 활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li> <li>▶사회교과에 대한 학습 동기를 유발하여 사회 교과가 단편적인 지식으로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닌, 생활을 유익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유의미한 과목임을 인식하도록 한다.</li> </ul>
과학 매니아	최향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험실습을 통한 과학적 탐구활동으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li> <li>▶생활속의 과학을 발견하고 재해석하여 창의적인 실험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다.</li> </ul>
仁義禮智信	김은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자동화를 통해 언어생활에 사용된 한자 어휘를 이해하고 뜻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li> <li>▶재미있는 동화 속에서 '仁義禮智信'의 의미를 찾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생각의 스위치를 'ON'으로! 철학반	박혜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인 삶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통찰하고 인성을 함양하며 창의지성교육으로 비판적사고력과 정의적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한다.</li> <li>▶중학생들이 느끼는 삶의 절실한 문제를 철학적으로 접근하여 지식 창조 및 지식의 재구성 등 자신의 생각 만들기를 유도한다.</li> </ul>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안산 공단지역의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 광고로 만나는 국어의 모든 것'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편견 극복 활동을 하며, 방송작가의 교육기부를 받아 광고 및 방송 에피소드 등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C출판사의 협조로 프로그램 활동의 포트폴리오를 문집으로 제작하는 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로 만나는 영어' 반에서는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 및 중국 등 지역 사회 외국인의 교육기부를 통해 다양한 언어를 체험하는 활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스위치를 ON으로, 철학반'에서는 경기도교육과정의 기초교양프로그램인 철학을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운영하며, 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직

업군의 사회인을 초청하여 삶의 철학을 듣고 느낀 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 만들기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Prism 수학반'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유연한 사고력 및 창의성 발달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첫 주에는 '미술&수학'이라는 주제로 스트링 아트 및 테셀레이션 수업을 진행 하였습니다. 스트링아트는 곡선을 쓰지 않고 '직선'만을 이용하여 곡선을 표현하는 예술입니다. 점, 선 등 기하학의 기본요소를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내는데 점과 점을 이어 선을 만들고 이런 선들이 모여 아름다운 곡선을 표현 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며, 작품 속에 담임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를 쓰게 하여 마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의적 능력의 신장과 함께 수학이 딱딱하기만 한 것이라는 학생들의 사고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도안을 가지고도 선을 긋는 방법을 달리하면 나타낼 수 있는 무늬들이 무궁 무진 하므로 학생들의 표현력, 창의력 발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테셀레이션은, 동일한 모양을 이용해 틈이나 포개짐 없이 평면이나 공간을 완전하게 덮는 것을 말합니다. 테셀레이션의 예로는 모자이크무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테셀레이션은 평행이동, 회전이동, 대칭이동 등을 이용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간단한 평행이동을 이용한 테셀레이션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보았고, 화려한 테셀레이션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테셀레이션을 만드는 기본원리만 알려주고 모듈원끼리 무늬결정, 역할분배를 통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내는 협동하는 것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테셀레이션은 패션산업, 디자인산업, 벽지 등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학생들과 이야기 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Prism 수학반 활동 예시 자료입니다.



선택2의 경우 학생들의 진로적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본교의 교사가 수업의 중심에서 계획하며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외부강사와의 co-teaching을 하되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한 마음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교사별 교육철학을 담은 활동지등 포트폴리오 관리는 각 프로그램 담당 본교 교사가 하면서 단순 활동에서 그쳐왔던 기존의 계발활동 수준의 수업과는 차별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 7〉 선택2프로그램-진로적성

프로그램명	담당 교사	프로그램 개요
신길 비즈쿨A	최향숙	▶비누만들기,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을 배우고 창업 계획서 작성 및 홍보활동, 내가 만든 제품판매 및 수익에 대한 사회 환원까지를 경험 해 보도록 한다.
신길 비즈쿨B	김영선	
스포츠문화체험	김연주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따라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기 위해 다양한 스포츠문화를 체험함으로써 건강과 활기찬 여가문화에 대한 경험을 체득하며, 건전한 스포츠문화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
영상스토리 창작	김정훈	▶영화의 탄생에서부터 영상구현의 기본의 원리 및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초기무성영화와 최근의 영화의 차이를 비교하고 토론하여 활동지에 정리하는 시간을 갖으며 학생들이 관심 많던 영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영화의 기본이론을 배운 후 다양한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프로그램명	담당 교사	프로그램 개요
녹색학교 만들기	이영교	▶ 디지털 유비쿼터스 시대의 이면에 있는 피할 수 없는 전자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의식을 형성 할 수 있게 하고 실생활에서 활동하여 녹색사회 만드는 데 일조 하는 경험을 제공 한다.
페르소나	이상아	▶ 창의적 교육연극을 통하여 학생들이 놀이의 개념을 뛰어넘어 자신감을 얻고 갈등을 극복하며 새로운 과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의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요리(보고)조리(하는)반	천세훈	▶ 단순히 요리를 만들고, 먹어보는 활동이 아닌 다양한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지식과 정보, 기술들을 사용하고, 제한된 공간과 도구를 이용하여 모둠원과 같이 실습을 진행하며, 타인과의 관계, 갈등등 사회적 상호작용역량의 강화를 꾀한다. ▶ 요리실습을 진행하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고 기존 수업보다 자율적인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자율적 행동 역량을 강화한다.
봉우리 (봉사하는 우리)	최열	▶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함께 더불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S.C.C (Singil Computer Club)	이가영	▶ 주제가 있는 프리젠테이션 및 동영상 제작을 통해 컴퓨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가면서 나만의 게임을 제작해보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신길의 품격	김은영	▶ 견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주변환경과 패러다임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예절의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몸가짐은 학생들에게 필수적 요소이므로 다도 및 꽃꽂이 등을 통해 차분한 마음과 기품을 지니도록 한다.

선택2 비즈쿨 반의 경우 축제기간 등을 이용하여 천연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직접 홍보하여 판매해보며 수익금으로 제품을 추가 제작하고 봉우리(봉사하는 우리)반에서 활동하는 노인 복지관등에 연계하여 성탄절 등에 선물로 전달 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나누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단지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한 직업군에 대한 동경보다는 가치를 담아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녹색학교 만들기반의 경우 녹색소비자연대와 MOU체결을 통해 담당교사와 함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다양한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보고)조리(하는)반의 경우 외부 강사의 도움을 일부 받고는 있지만 학생들이 담당교사와 직접 체험활동을 나가서 음식의 맛을 보고 모듬별로 직접 만들어 보는 활동을 계획하는 등 자유학기제에 걸 맞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우리반의 경우 1학년의 도움반 학생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 사회의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등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느끼고 따뜻한 성품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 합니다.

신길의 품격반의 경우 학부모의 교육 기부를 받아 담당교사와 co-teaching 운영으로 꽃을 소재로 한 디자인 및 작품 활동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으며 스포츠문화체험반에서도 지역사회의 교육기부로 양궁체험 및 스포츠 전문 방송인 강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프로그램에서도 계획된 교육 과정에서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데 꾸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요리(보고) 조리(하는)반 활동 예시 자료입니다.



월, 화요일에 각 2시간씩 운영되는 블록타임 예체능 프로그램은 체육, 음악, 미술의 세 교과 관련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음악의 경우 '뮤지컬'반(school of musical) 과 '국악반'(소리여울)으로, 미술의 경우는 '회화'와 '디자인'으로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육의 경우는 학교시설과 교원 수급을 고려하여 월,화 각4개 반으로 운영하되 이전 체육시간에 진행이 어려웠던 리그전 등을 통하여 보다 활기 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음악과 미술은 2학기 교육과정 중 2개월씩 교차하는 방식의 운영을 합니다. 블록타임의 예체능 활동을 통하여 미래 사회에서 증가된 여가 시간을 풍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프로그램에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표 8〉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교시	학급	교과	
		월요일	화요일
5~6교시	1반	체육	음악
	2반		미술
	3반		
	4반		
	5반	음악	
	6반	미술	
	7반		
	8반		

다음은 본교 학생들 중 5%의 학생만 경험해봤다는 불링을 체육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한 모습과 '소리여울'반에서 국악 활동을 통하여 우리 음악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활동 예시 자료입니다.



금요일에 운영되는 진로인성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담임 선생님들의 시수로 확보하여 운영하며 본교 진로상담교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담임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도록 하며 체험활동에 있어서는 학교가 주관한 일방적인 견학위주의 단순체험에서 탈피하여 보다 자기주도적인 진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즉, 학년이나 학급단위로 실시하던 체험학습을 소규모의 5-6명, 또는 개인별로 실시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보다 적극적인 체험활동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직접 직업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진로 멘토와 대화를 통해 직업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로활동은 가능한 학생 스스로가 계획하며, 학생이 해결하기 어려운 점은 학부모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청소년기에 심각한 학부모와 학생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성숙한 진로의식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를 조직하여 학부모를 진로 코치로 활용하거나, 체험학습 시 교사와 함께 학생들의 인솔에 참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특히 중간, 기말고사 기간을 활용한 소규모 단위의 전일제 진로체험활동에 학부모지원단의 적극적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 9〉 자유학기제 학생 진로 체험 운영

구분	내용	
학부모 지원단	구성	1학년 학부모 35명
	활동	학생 진로코치 및 체험학습 활동 인솔
학생 진로 체험	시기	2,3학년 지필고사 기간 및 개인별 신청을 통한 수시 체험 활동
	단계	정보 자료 수집 및 선택 → 체험학습 계획 작성 → 학교장 승인 → 체험학습 참여 → 결과보고서 제출

### Ⅲ. 자유학기제 성공적 확산을 위한 다짐

연구학교 선정 이후 교육과정을 준비하면서 연구 1차 년도에는 무엇보다 교사들의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교육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1학년 전담이 아닌 복수학년 지도 교사들이 많은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준비 부담은 상당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사제 동행의 활동량을 늘린 소통을 통해 긍정적 정서와 몰입의 경험, 존재감 및 성취감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데 자유학기 이후에도 중학교 과정 중 2년을 본교에서 지내야 할 학생들을 생각할 때 외부강사 의존도가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을 경우 자유학기 동안의 운영은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예산지원의 한계가 있고 자유학기를 지난 후 교육의 단절이 이루어지면서 한학기의 행복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었습니다.

이에 본교는 자유학기제가 교사의 전문성에 의하여 그 성패가 좌우 된다는



판단으로 어렵지만 교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며 꼭 필요한 경우만 외부 강사의 협조를 받고 교육적 공감대가 형성된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여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동안의 교과서 의존적 교수학습으로부터 탈피하여 교사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단기간에 완성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용기있는 움직임에 의미를 부여하고 교사를 격려하여 최소 3년의 연구 과정을 거쳐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 교육에 조그만 촛불을 켜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교는 1학기에 이어 하계방학을 거치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2학기 개학 직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예체능 및 선택프로그램, 진로인성프로그램등 자율과정의 각 영역별로 개발 담당 선생님께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였으며 학생들의 소신 있는 선택에 따른 반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직 어리고 자기주도적 선택의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직접적 안내를 통한 선택권 부여가 다소 걱정스럽긴 했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취지에 맞는 원칙적 진행을 시도하자고 판단하여 각 담당 교사가 각각 공개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하였던 것입니다.

일부 선택프로그램은 선호도가 다소 낮기도 했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적극적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반전의 경험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월요일 3시 30분 신길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자유학기제 지원단을 포함한 학부모님들과 1학년 학생 및 전교사가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하나 된 마음을 갖고 발대식을 거쳐 힘찬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자유학기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계획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이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계속적으로 추가해 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홍보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하며 사회 전체가 교육에 희망을 걸고 교육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자신보다 더 큰 곳에 의미를 부여할 때 얻어 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자기 주도적이고 미래지향적 역량을, 교사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내 자녀의 학습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는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으로 묵묵히 걸겠습니다. 신길 자유학기제에 우리 교육의 희망을 담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areer Compass Program을 통한 재능과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정 호 경  
(광주 동신중학교 교감)





## Career Compass Program을 통한 재능과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

정 호 경 (광주 동신중학교 교감)

‘행복 교육’이 대두되고 있는 요즘, 많이 알게 하는 교육보다 배우는 것을 좋아하게 하고 나아가 배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견하고 키워주며 행복한 학생, 행복한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개정 이유로 ‘현재의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창의적인 학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지나친 학습부담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인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며,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폭넓은 인성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 기본방향을 학기당 이수 교과목수 축소를 통한 학습의 효율성 제고,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통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육성, 교과 재구조화를 통한 학생의 핵심 역량 강화, 끝으로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한 학교의 다양화 유도 등에 두었다. 또한 정부는 혁신 교육 정책의 실현을 위해 ‘자유학기제’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된 최상덕 외의 「미래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과 전략: 2013~2017년 핵심교육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연구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우리 사회 교육문제에 대한 질문에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 및 인성문제 심각(34.1%)’에 대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

양극화 심화(16.4%)'를 답했다고 한다. 그리고 델파이조사에서는 '교육양극화 심화(28.3%)'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이 '개인의 특기, 적성을 무시한 획일화된 교육과정(24%)'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국민여론조사에서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관련해서는 '창의성(21.5%)'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이어 '책임감(19.3%)', '도덕성(16.2%)',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7.5%)'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후 수행된 최상덕 외의 「자유학기제 실행 방안」에서는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5%가 활동중심 수업과 진로체험 등을 통해 인성, 사회성, 사고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등을 함양하는(광의의 진로교육)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를 보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상황적, 시대적 맥락에서 자유학기제를 분석하고, 자유학기제 운영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우리 교육의 목표가 자주적 생활 능력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I. 자유학기제 운영계획

### 1. 수업의 혁신 : 끼를 찾아 꿈을 실현시키는 참여와 활동 중심의 수업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흐름을 제시해보면, '교과 교육 과정 분석 → 핵심 성취 기준 선정 → 수업의 설계 및 실행 → 수업의 평가 및 개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할 사항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수업의

혁신을 위하여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며, 교과 교육과정 분석 및 핵심 성취기준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핵심성취기준의 기본방향은 단원이나 내용의 중요성에 따른 수업의 템포를 조절하는 것이지만 연구학교의 자율성을 활용하여 교사의 전문성에 기반을 둔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성찰하고 이에 맞게 학습내용을 선별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이 좀 더 여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참여와 활동 중심의 진지한 배움이 싹틀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되는 것이다. 다음은 사회 교과의 예시이다.

대단원	중단원		대단원	중단원
8 개인과 사회 생활	1. 인간의 사회적 성장	⇒	8 개인과 사회 생활	2. 사회적 지위와 역할
	2. 사회적 지위와 역할			
	3. 사회 집단			
9 문화의 이해와 창조	1. 문화와 일상생활		9 문화의 이해와 창조	2. 문화 이해의 태도
	2. 문화 이해의 태도			3. 대중 매체와 대중문화
	3. 대중 매체와 대중문화			
10 사회의 변동과 발전	1. 현대 사회의 변동	10 사회의 변동과 발전	3. 변화하는 한국 사회	
	2. 한국 사회의 변동과 남북 분단			
	3. 변화하는 한국 사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하여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수업 모형이 제시될 수 있다. 본교는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체험중심의 재능과 진로교육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하여 일부 교과의 시수를 감축하였기 때문에 시수가 감축된 교과는 교과 교육과정을 재편성 하여야 하고 더불어서 다른 교과에서도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과 체험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수업을 설계하고 다양한 수업모형에 따른 수행평가를 함께 계획하였다. 또한 교과간의 유사한 단원을 엮어 교과-교과가 연계한 수업내용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수업모형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학생들의 융합적, 통합적 사고능력을 신장시키도록 유도했다.

### ■ 과학, 환경, 미술교과 단위 재구성 예시

과학	환경	미술	과학	환경	미술
5.1 열평형	2.1 우리 생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1.1 아름다운 우리자연			
5.2 열의이동		1.2 자연을 고려한 환경			
5.3 비열과팽창	2.2 산업화 및 도시화와 환경변화	3.1 흥미로운 풍경	국어과		
6.1 물질의 상태			4. 주체적인 해석과 감상	6.1 보고 듣고 말하는 비평	
6.2 분자의 운동					
6.3 상태와 에너지	2.3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3.2 내가 만난 풍경			
7.1 지구의 물	3.1 생태계의의미와 구성요소	4.2 판위에서	7.1 지구의 물	3.2 공기·물·흙의역 할과 인간과의 관계	1.1 아름다운 우리자연
7.2 해수의 성질					1.2 자연을 고려한 환경
7.3 해수의 순환	3.2 공기·물·흙의 역할과 인간과의 관계	6.1 보고듣고 말하는 비평			

### ■ 과학, 환경, 미술교과 수업 설계 예시

교과	과학	환경	미술	비고
단원	7. 수권의 구성과 순환 1. 지구의 물	2. 환경과 환경보전 1.1 공기, 물, 흙의 역할과 인간과의 관계	1. 조화로운 삶 1. 자연과 호흡하는 삶 1.2 자연을 고려한 환경	
수업모형	탐구학습모형 개념학습모형	토론학습모형 현장체험학습모형	실기학습모형	
수업의 흐름	◆----->			
	개념정리	개념 확장 및 응용	표현 및 적용	



## 2. 평가의 개선 : 배움의 성장을 유도하는 다양한 평가

자유학기제는 행복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개선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교육과정 및 수업 개선의 변화와 평가방안도 이에 적합하게 구안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평가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첫째, 중간·기말고사 등의 지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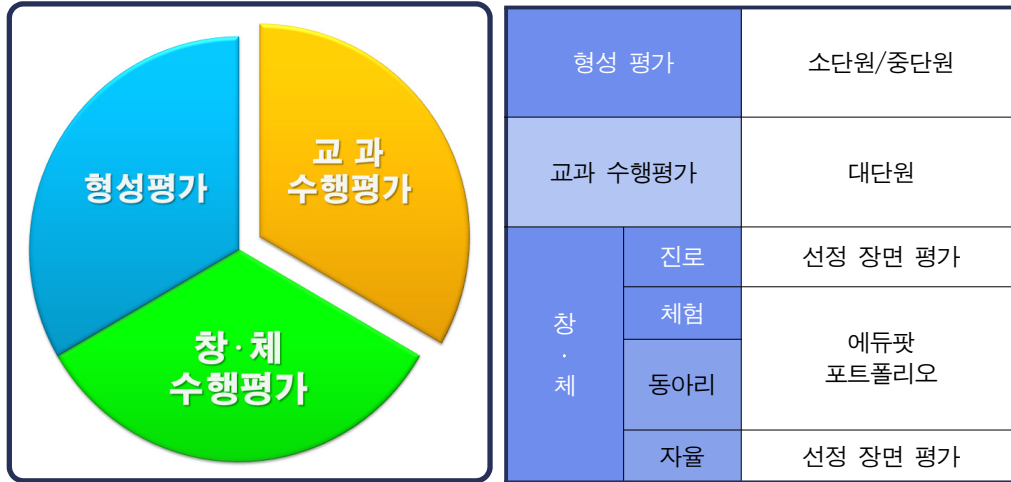
둘째, 학생의 학습 성취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자유학기 학업 성취수준 결과는 고입에 미반영한다(교육부, 2013.5.28).

교육부에서 제시한 자유학기제 평가의 기본 방향을 참고로 하여 본교는 '배움의 성장을 유도하는 다양한 평가'라는 표제아래 평가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평가의 절차는 '수업내용 분석 → 수업모형 결정 → 평가모형 선정 → 결과의 활용'으로 흐른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학습목표와 학습내용을 분석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수업모형을 선정하고 수업모형과 관련한 수행평가 모형을 결정하여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의 종류는 교과 '수행평가, 형성평가, 창·체 수행평가'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 평가의 종류 및 시기



## 국어교과 예시

대단원	중단원	평가모형
5.예측하며 읽기	먹어서 죽는다.	형성평가
	2. 건강 사회를 만드는 다양성	토론평가

다양한 평가모형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지필시험 위주의 중간·기말고사를 치르는 총괄평가의 기능이 약화되었으므로,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발달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되는 형성평가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형성평가는 평가 횟수를 증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개선에 도움을 주고,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학습동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어 교수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평가 결과의 서술식 기재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 ■ 학생 학습발달 상황 (뒷면 예시)

구분	성취수준	평가 척도
예측하며 읽기	5	능동적으로 읽기 위한 방법을 이해하고 있으며, 한 편의 글을 읽을 때 다양한 읽기 전략을 활용해서 글을 읽는 목적에 맞게 글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다.
	4	글을 예측하며 읽기의 방법과 효과를 이해하고 있으며, 설명하는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으며 읽을 수 있다.
	3	설명하는 글에서 주어진 정보를 분류하고 이를 통해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할 수 있다.
	2	글 속에서 사용된 설명 방식을 파악하고, 그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1	설명 방식의 종류를 알고, 이를 분류할 수 있다.

평가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시에서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282호)의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과 관련된 세부능력 및 수행평가,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 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 할 수 있다.」를 참고하여 기록해야한다. 평가 결과의 생활기록부 작성 방침은 다음과 같다.

- 학기말에는 여러 차례에 실시한 수행평가 결과와 교사의 판단에 의하여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을 결정하여 기재한다.
-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교과별 학업 성취수준 이외에 정의적 특성(노력, 성실도, 흥미도) 및 학업 향상에 대한 정보도 기재할 수 있다.
- 학생의 ‘자기성찰 평가’와 학부모가 평가하는 학생의 발달 상황을 기재하여 학교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학부모-학생 연계체제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교과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 과학 교과

- 증발이나 확산 현상을 분자 운동으로 설명하고 이를 분자 모형을 이용한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잘 하였으며, 실험 또는 자료 해석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를 바탕으로 보일-샤를의 법칙을 모둠활동으로 추론하고 설명하였다.
- 비열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물질에 따라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주변 현상을 비열을 이용하여 설명하였으며, 열팽창과 분자운동을 연결하여 그 의미를 알고, 냉난방 기구 사용, 주방기구 사용, 단열과 폐열의 활용, 지구 온난화 같은 일상생활에서 열에너지와 관련된 사례를 전도, 대류, 복사와 관련지어 각각의 예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그 중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에서의 단열과 발전소에서의 폐열 활용에 대한 사례 발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이용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관점이었다.
- 제시된 그림 자료를 통해 염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찾고, 실험을 통해 깊이에 따라 수온을 측정하여 그래프로 잘 표현하고,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하는 모둠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 온도 변화에 따른 물질의 세 가지 상태 및 6가지 상태변화를 구분하며, 상태변화가 물리적 변화임을 알고, 각각의 상태와 상태변화의 특성을 분자 모형을 이용한 분자의 배열과 분자 운동, 분자 간 인력으로 설명하며, 각각에 대한 생활 속의 예를 찾아 적절한 용어로 표현하는 데 익숙하다. 상태 변화의 각 과정에서 이동하는 열에너지의 출입을 설명하고, 상태변화 과정에서 출입하는 열에너지가 생활에 이용되는 사례를 찾아, 이를 설명하는데 다양한 방법과 표현을 사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 물을 지구계의 구성 요소인 수권으로 이해하고, 수권이 지구계에 어떻게 분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물이 소중한 자원임을 잘 설명하였으며, 빙하의 형성 과정과 물리적 특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빙하 속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그래프를 기후변화와 연관 지어 해석하여 현재와 과거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차가 크다는 점을 잘 설명하였다.
- 해수의 수온과 염분의 차이에 의해 심층 해류가 형성되어 해수가 순환할 수 있으며, 해수의 순환이 지구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한다는 사실과 해양자원의 이용, 인간 활동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보존의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기사 형태의 발표 자료로 제작하여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활동으로 해양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으며 관련 분야의 직종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 3. 재능과 진로 : 나를 찾아가는 체험중심의 교육과정

자유학기제의 기본방향 중 하나인 '진로교육 강화'는 자유학기에 집중적인 진로수업·체험을 실시하여 초등학교(진로인식)-중학교(진로탐색)-고등학교(진로설계 및 준비)로 이어지는 진로교육이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의 희망과 선호에 따른 다양한 동아리 활성화와 다양한 간접체험을 위한 선택적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방안이 필요했다. 그러므로 본교는 '나를 찾아가는 체험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표제아래 Career Compass Program 을 계획하고 매주 수요일을 'C.C.P DAY'라고 명칭하고 C.C.P를 활용한 체험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 C.C.P를 활용한 체험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요일 시간	월	화	C.C.P DAY	목	금
1	기본 교과 편 성		자율	25 시간	
2			창의·인성		
3			선택적 교육활동		
4					
5			SCEP		
6			동아리 활동		
7	진 로				방과후
8	방과후	방과후	방과후	방과후	방과후

우리가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을 영어로 표현하고 머리 글자를 따서 이름한 SCEP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바른 품성과 높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는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것을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로 설정한다.'를 학교진로교육목표와 성취기준에 밝히고 있다. 본교의 C.C.P는 SCEP과 맞물려있는 것으로 진로캠프, 직업체험, 선택적 교육활동, 상담활동, 직업인 초청강연 등으로 구성하였다.

#### ■ C.C.P (Career Compass Program) 구성 현황



선택적 교육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많은 학생들이 요리에 관심을 크게 보임에 따라, 요리 실습 4개 반, 우리역사, 드라마와 문화, 영상매체 만들기 각 1개 반하여 총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C.C.P 선택적 교육활동 프로그램 현황

4개반편성	1개반	1개반	1개반	비 고
요리이야기	우리역사반	드라마와문화	영상매체만들기	7개프로그램운영

SCEP 운영은 12차시로 구성된 SCEP (School Carrer Education Program)을 Wi-Fi 창업과 진로 6차시와 연극을 통한 꿈 찾기 6차시로 구성하였다. 6명의 교사가 창업과 진로, 연극을 통한 꿈 찾기를 주제로 6차시 분량의 SCEP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6차시 실시 후 교대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 ■ SCEP 운영 계획

구분	Wi-Fi 창업과 진로	연극을 통한 꿈 찾기
1차시	창업가정신	친밀감 형성
2차시	우리만의 특별한 사업 아이템 찾기	나를 돌아보기
3차시		6가지 그림 이야기
4차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스토리텔링
5차시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	장면(즉흥극) 만들기
6차시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기	공연 및 감상



## II. 자유학기제 준비 과정

본교는 1학년 6학급, 2학년 8학급, 3학년 8학급 규모로 50명의 교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원 평균 연령은 46.6세, 평균 경력은 19.6년으로 나타난다. 학부모의 학력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졸 학력이 적게 나타나며 직업은 일부 교사·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자영업, 제조공장의 생산직 직원, 건설 노무직, 재래시장에서의 장사, 운전기사 등이 많으며 생계형 맞벌이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0% 가까이 나타나고, 그 밖의 교육 복지대상자 또한 12%나 된다. 학생들 간의 성적격차가 큰 편으로 과학고·상산고·한일고 등에 합격한 학생이 있는 반면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 학력 부진 학생으로 분류된 학생이 21명(7.5%)이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볼 때 본교 학생들은 가정형편상 실질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학원에서 선수학습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가정형편상 학원에서의 수업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 사이의 학습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또한 열악한 경제 환경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지도와 진로지도에 전력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녀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지역으로 학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사전 실태 조사를 1, 2학년 학생들과 본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진로교육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생들을 위한 자유학기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꿈을 찾아 자신의 진로를 깊이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겠다는 뜻을 한 데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선택적 교육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어려움에 봉착했다. 자신들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분산적인 결과가 나

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많은 학생들이 '요리 강좌'를 선택한 것이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요리 강좌를 개설하여 4개 반 이상을 열어줘야 할 것인지, 과연 요리를 통한 교육적 효과는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요리이야기(4학년)', '우리역사(1학년)', '드라마와 문화(1학년)', '영상매체 만들기(1학년)'으로 총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연 C.C.P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창의·인성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인지, 학생들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었다. 본교에서 명칭한 'C.C.P DAY' 역시 학생들이 단순히 수업 안하는 날로 인식하거나, 그 날의 학교생활에 있어 불만족을 표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찌나하는 우려도 매우 컸다. 교사들의 협의 끝에 C.C.P DAY는 교과(군)과 연계한 7개의 선택적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희망과 의사를 존중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창의·인성교육은 창의성 부문은 전문가 초빙 강연, 인성 부문은 특별 강연 형식으로 학교 폭력, 성교육, 인권교육, 집단상담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된다. 또한 SCEP은 교과와 연계한 내용으로 재구성하고, 선택적 프로그램은 블록타임으로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학생들은 현재 C.C.P DAY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의 수업(월, 화, 목, 금요일-기본과정)에서는 일부 교과는 수업개선을 위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 교과는 수업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은 혼재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어,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라는 변화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학생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수업 방법의 개선과 함께 효과적인 자유학기제를 운영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도 어려움의 하나였다. 학부모님들은 진로탐색이니 학생들의 꿈, 끼, 행복을 찾는다는 의도도 다 좋으나,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교과 시간의 감소로 학생들의 성적저하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학부모님들에게 성적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고, 학교 설명회와 중간·기말고사 시기에 학생 학습 발달 상황 결과지를 전달하며 의사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겠다는 계획의 뜻을 밝혔다.

이러한 학생들의 교육환경 분석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본교의 상황에 맞게 자유학기제를 준비하게 되었다. 준비단계에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사항이 바로 학업에 대한 의지는 높으나 교육의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의 학생들과 진로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가 제한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수업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으며, 본교 선생님들에게 학생의 배움과 즐거움에 중점을 두고 다시 한 번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교사가 되어보자고 격려했다. 교사의 열정이 곧 전문성의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론과 정책이라 할지라도 결국 성패의 열쇠는 학생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쥐고 있다고 본다. 교사가 의지를 가지고 변화해나가야만 성공할 것이다. 사전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교사는 변화를 두려워했다. 특히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큰 변화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교원연수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교사들의 참여의식과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가져오고자 한다. 본교는 수업 혁신을 이루고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진취적이고 도전의식이 있는 교사층을 활용하고, 많은 교사들의 지원을 통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이끌어갈 것이다.

자유학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여 많은 연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를 함께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를 위한 팀 구성이라고 본다. 자유학기제를 이끌어 갈 의욕적인 동료교사들과의 팀 구성을 통해 교과 시수 감축부터 자율과정 프로그램을 누가 맡을 것인가, SCEP활동을 위한 준비물과 전담인력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일까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뒤에서 많은 준비를 하는 교사는 시수를 절감해주자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선택적 프로그램을 진행할 교사를 선택하는 어려움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본교는 보건, 상담, 진로 교사가 선택적 프로그램 진행 교사로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창의·인성 특강이 매주 운영되어 시수 부담을 줄이도록 계획하였다. 자유학기제는 교사의 전문성과 적극성, 능력을 바탕으로 한 인력의 필요가 절실하다. 그러므로 교사의 성실성과 진취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주당 시수 조정을 해주었고, 교사 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어려운 일을 도우며 성공적인 자유학기제를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기에 자유학기제 팀 구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유학기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학교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다. 중소도시 소재 학교가 겪는 어려움은 어쩔 수 없겠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진로, 문화, 예술 등에 관한 CRM을 이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자율과정 프로그램은 2009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확장된 형태이므로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 자율과정과 함께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 곧 자율과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본교는 자율·봉사·동아리·진로활동 중에서 동아리 활동에 큰 비중을 두었으며 교사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동아리 활성화를 바탕으로 내실화가 이루어진 후 학생들의 주도적인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2학기도 어느덧 3주가 흘렀다. 3번의 C.C.P DAY를 통해 학생들은 벌써부터 매우 큰 만족을 표현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과 수업을 통해서는 자유학기제의 체감이 어렵다고 한다. 또한 교사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린다. 아직까지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첫 발을 내딛는 시기에 찬성의 뜻을 표하며 격려와 도움을 전하는 교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모든 교사가 자유학기제의 운영이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변화와 수업의 혁신은 교사가 직접 풀어나가야 할 숙제일 것이다.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스스로의 수업 준비라고 본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면밀히 검토하며 계획에 따른 수업을 진행한다면 교사는 자유학기제와 함께 스스로의 성장에 만족할 것이다. 특히 수업의 변화는 평가 방법을 변화하고 평가 계획을 구체화 하면 그에 따라 교수·학습법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고 평가에 맞게 수업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이렇듯,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수업의 개선이 가장 필요하다.

### Ⅲ. 향후 자유학기제에 거는 기대

자유학기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은 현재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혁신학교와 진로집중이수학년제와 매우 유사하다. 곧 자유학기제는 혁신학교 및 진로집중이수학년제의 장점과 교사들의 의지가 결합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학기제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합과 융합 교육과정의 비중을 높인다면 학교 현실에 맞는 교육과정의 내실화의 발판이 될 것이다.

둘째, 교사의 고민과 성찰의 계기가 될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혁신적인 수업을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끝없는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자유학기제의 올바른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며, 교사 개개인은 이를 통해 스스로의 성장의 만족과 행복감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의 감소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다양한 교수·학습법의 적용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는 토의·토론 학습모형을 비롯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비슷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다양한 학습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며 배려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서로의 꿈을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전반적 학교생활을 만족해 나가며 긍정적인 생활태도와 학교문화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교사들의 끝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고 서로의 행복을 위하게 될 자유학기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자유학기제는 정착 후 점진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것을 확신한다. 자유학기제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교사로서 준비과정을 통한 만족감과 스스로의 성취감에 행복감을 느꼈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즐거워지고 수업시간에도 웃을 수 있다고 행복해한다.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운영을 긍정적으로 보고 참여해봄으로써, 교사로서의 소중한 경험을 다른 학교도 경험한다면 누구나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 행복한 삶의 첫걸음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며

배 자 영  
(대전 외삼중학교 교사)







## 행복한 삶의 첫걸음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며

배 자 영 (대전 외삼중학교 교사)

대전 신도심지역에 위치한 대전외삼중학교는 28개 학급을 가지고 있는 중 소규모 학교로 학부모들은 주로 대덕벨트에 위치한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본교의 학부모님들은 교육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높은 편이나 다수가 맞벌이인 관계로 학교에서 실제적인 진로·인성을 포함한 점 더 활발한 교육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향은 온순하고, 예의가 바른 편이며 문화적 경험이 풍부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지적호기심이 강한 편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을 강하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연구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자율과정 시간의 확보를 위해 기본 교과 수업을 감축한 것이 학력저하의 원인이 되지는 않을까 또 그것이 고등학교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에 대해 우려를 했습니다.

이에 본교는 자유학기제 운영모형 중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학생참여 중심의 교육활동, 진로체험을 강조한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을 선택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교는 자유학기제 시행 전 5월과 7월에 실시한 학부모 면담과 학부모 설명회 등을 통해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의 운영 시 학부모가 염려하는 점과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업 성적에 대한 평가가 없이 어떤 방법으로 1학년 교과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학생의 학업 성취 수준의 확인을 위하여 과목 별로 어떤 형태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선택프로그램의 수업내용은 무엇인지, 선택프로그램의 반구성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반배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교는 TF 팀을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를 통해 교과연구회의 활성화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교과연구회를 중심으로 발빠르게 교과별 지도계획, 교과별 평가모형 등을 수립하여

- 첫째, 과목별로 학생활동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을 진행하며
- 둘째, 평가는 학생 개별평가를 지향하며
- 셋째, 개설된 선택프로그램반의 지도계획을 수립, 안내
- 넷째, 선택프로그램 반구성은 100%로 수요자 희망반 위주로 배정하는 등

학부모의 우려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 학부모 연수와 홍보,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본교가 자유학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적인 마인드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젊은 교장선생님과 인화를 바탕으로 교직원간의 의사소통이 매끄럽도록 잘 이끌어주신 교감선생님, 연구부장님 외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대한 열의와 열정이 높은 30, 40대 교사가 다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교는 자유학기제와 같은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사들이 많은 젊은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 운영에 있어서 교사들의 업무에 대한 부담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의 주축이 되는 1학년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선택교과프로그램의 진행, 진로교과 수업, 동아리 수업, 교과수업, 예체능 수업 등)은 심도있는 연구학교 운영의 질관리 부분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본교는 1학년 교과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2,3학년 교사를 주축으로 하여 구성된 교과연구회를 조직하고 활성화하였습니다. 우선, 과목별 교과연구회에서는 핵심성취기준을 선정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1학년 교과수업의 지도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명의 교사가 1개 이상의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게 하여 교과별 자료를 구축하였고, 교과지도

내용과 연관된 평가방법의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과연구회를 중심한 정말 많은 교사협의회가 있었습니다.

1학년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 효율적인 자율과정(진로활동, 선택프로그램, 동아리, 예체능 교과)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율과정을 오후시간 배치하였고, 블록 타임 수업이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계 담당 교사가 시간표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1,2,3학년 교과선생님들께서는 수업이 오전에 연속으로 집중이 되는 등의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주시는 등, 전교사가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선택교과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교과의 개설은 교사협의를 통해 1학년 교과 중 도덕, 과학, 수학교과를 제외한 국어, 사회,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영어 교과에서 시수를 약 1시간 정도를 감축하여 특정 교과에서의 희생을 동반한 수업시수의 감축이 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시수를 감축한 과목의 1학년 교과교사가 지도교과와 관련된 선택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과의 연장선상의 체험수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여 학력저하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낮췄습니다. 그러나 1명의 교사가 교과와 선택교과의 수업을 병행한다는 것 역시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교과 프로그램을 2학기 월 16시간 총 4세트로 구성하여, 수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사의 교재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교사의 교재개발에 대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택프로그램의 반개설을 1학기 6월 정도에 마무리하였고, 선택수업의 질관리의 일환으로 외부강사를 투입하였습니다.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선택수업은 본교 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팀 티칭수업이 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선택반 구성을 위해서 학생 희망 사전 설문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를 반배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예상대로 특정반에 몰렸고, 우리는 반배정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선호가 높은 반들을 두 개반으로 분반하고 교사를 확충하여 선택반의 개수를 6개 과정 10개반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7월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택프로그램에 관한 안내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선택반 구성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생 선택 희망반(월(9월-12월) 1,2희망반)을 한꺼번에 신청받아 학생 개개인이 본인이 1희망반의 수업은 3개, 2희망반의 수업은 1개를 들을 수 있도록 희망한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반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수업태도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수학습에 열의를 일깨워주었고, 선택수업이 추구하는 수업의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어 즐겁고 행복한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로 부분에 있어 시행되는 진로체험을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진로포트폴리오 형식의 '드림 스케치'에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로 체험 전 계획서 작성하고, 체험 후에는 활동 보고서 작성을 통해 체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진로 체험 시 학생 안전 관리 지도 부분은 전문교육을 받은 학부모 진로코칭단과 본교 교사가 협력하여 학생들을 인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진로 역량개발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을 위해, 연구학교 시행 전후로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진로교사가 연구학교 운영 전에 실시한 진로심리검사 결과를 근거로 비슷한 유형의 학생모듬을 구성하여 집단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들이 체험한 활동은 교내진로 경진대회와 연계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로프로그램 활동 운영에 있어서 비진로교과 교사가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과 학급별 수업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로진학교사 및 상담교사가 방학동안 진로교수학습 과정안 및 수업자료를 2시간 블록타임으로 17주 분량의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개학전 비진로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주기적으로 하였고, 현재 계획에 의해 수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로 관련 체험을 위한 협력업체 구축면에서는 대전시 교육청에서 개발한

진로체험자료를 적극 활용하였고, 지역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관기관을 직접 섭외하였습니다.

본교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계기로 전교과, 전학년 학생 활동 중심의 교수 학습 모형 개발 및 수업 방법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진로체험활동, 선택프로그램 운영 등의 탄력적인 자율과정 운영과 교과연구회 중심으로 전교사가 수업 모형 개발 및 수업 방법 개선에 집중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활동을 하는 등 자유학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본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학교 계획 및 진행 내용입니다.

## I.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 1. 1『선택프로그램 중점모형』 운영을 위한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 가.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모형

시간	요일	월	화	수	목	금
1교시	기본교과 편성 (22시간)					
2교시	기본교과 편성: 22시간×9반 = 198시간					
3교시	선택 프로그램: 4시간×9반 = 36시간					
4교시	진로: 3시간×9반 = 27시간					
	예술·체육: 3시간×9반 = 27시간					
5교시	진로	선택 프로그램		선택 프로그램		
6교시		예술·체육		예술·체육		
7교시					동아리	
방과후학교	'자유과정' 과 연계·운영					

진로탐색 3 + 선택프로그램 4 + 예술·체육 3 + 동아리 1 = 11시간

#### 나. 자율과정 운영

과목	단위	주당 시수 (단위×9반)	프로그램 수	운영방법
선택프로그램	4	36	9	• 학생선택에 따른 반 구성
진로프로그램	3	27	2	• 학생 전체 대상 운영
동아리	1	9	16	• 학생선택에 따른 반 구성
예술·체육 프로그램	3	27	3	• 학생 전체 대상 운영
총계	11	99	30	

## 2. 2013학년도 교육과정 및 시간배당표

구분	학년	기준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이수 시수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 (군)	국어	442	85(5)	68(4)	68(4)	68(4)	68(4)	68(4)	425	감 17
	사회	510	51(3)	34(2)	34(2)	34(2)	85(5)	85(5)	561	감 17
	역사				51(3)	51(3)				
	도덕		34(2)	34(2)	34(2)	34(2)				
	수학	374	68(4)	68(4)	85(5)	85(5)	68(4)	68(4)	442	
	과학	646	51(3)	51(3)	68(4)	68(4)	68(4)	68(4)	561	감 17
	기술·가정		51(3)	34(2)			51(3)	51(3)		
	체육	272	51(3)	34(2)	34(2)	34(2)	51(3)	51(3)	255	감 17
	음악	272	17(1)		51(3)	51(3)			153	감 17
	미술		34(2)							
	영어	340	68(4)	51(3)	51(3)	51(3)	68(4)	68(4)	357	감 17
	선택	한문 진로와직업	204			34(2)	34(2)	34(2)	34(2)	170
소 계		3060	510 (30)	374 (22)	510 (30)	510 (30)	510 (30)	510 (30)	2924	감 136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봉사	306	17(1)	17(1)	17(1)	17(1)	17(1)	17(1)	102	
	진로		17(1)				17(1)	17(1)	51	감 17
	동아리		17(1)		17(1)	17(1)	17(1)	17(1)	85	감 17
	학교스포츠클럽		17(1)		34(2)	34(2)	17(1)	17(1)	119	감 17
	소 계		68(4)	17(1)	68(4)	68(4)	68(4)	68(4)	357	감 51
자유 학기제 자율 과정	선택프로그램			68(4)					68	증 68
	진로프로그램			51(3)					51	증 51
	예술·체육 프로그램			51(3)					51	증 51
	동아리			17(1)					17	증 17
	소 계			187 (11)					187	증 187
계	3366		578 (34)	578 (34)	578 (34)	578 (34)	578 (34)	578 (34)	3468	0
연간 수업시간수			1156		1156		1156		3468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 3. 자유학기제 반별 시간표

2013 학년도 1-1 김경혜						2013 학년도 1-2 이희문						2013 학년도 1-3 김옥경							
월	화	수	목	금	교과	월	화	수	목	금	교과	월	화	수	목	금	교과		
1	체육	영어	과학	과학	기가	1	영어	과학	도덕	도덕	국어	1	도덕	수학	국어	수학	체육		
	김상민	김경혜	박미숙	박미숙	이희문		김경혜	박미숙	한수정	한수정	김옥경		한수정	김은영	김옥경	김은영	김상민		
2	수학	수학	기가	수학	사회	2	사회	국어	사회	체육	수학	2	국어	체육	회화	영어	국어		
	이혜용	이혜용	이희문	이혜용	김혜인		김혜인	김옥경	김혜인	김상민	이혜용		김옥경	김상민	박영아	김상은	김경혜		
3	사회	도덕	영어	국어	국어	3	회화	수학	국어	수학	체육	3	수학	국어	기가	과학	도덕		
	김혜인	한수정	김경혜	김옥경	김옥경		박영아	다니엘	이혜용	김옥경	이혜용	김상민		김은영	김옥경	이희문	이혜경	한수정	
4	국어	회화	체육	예2	과학	4	과학	기가	수학	국어	영어	4	사회	과학	과학	예1	기가		
	김옥경	박영아	다니엘	김상민	조세형	박미숙		박미숙	이희문	이혜용	김옥경	김경혜		김혜인	이혜경	이혜경	김금선	이희문	
5	진로	선택	예1	선택	수학	5	진로	선택	예2	선택	과학	5	진로	선택	영어	선택	수학		
	김경혜	김경혜	영어강	김금선	김경혜	영어강	이혜용		김금선	이희문	노장열	이희문	박미숙		김옥경	이운숙	국어강	김경혜	김은영
6			국어		도덕	6			예1		기가	6			예2		사회		
	▽	▽	김옥경	▽	한수정		▽	▽	김금선	▽	이희문		▽	▽	노장열	▽	김혜인		
7	독서		예3		동아리	7	독서		예3		동아리	7	독서		예3		동아리		
	김금선		황성하				이희문		공세진				조가연		이상진				

2013 학년도 1-7 김은하						2013 학년도 1-8 이혜경						2013 학년도 1-9 조세형							
월	화	수	목	금	교과	월	화	수	목	금	교과	월	화	수	목	금	교과		
1	수학	과학	기가	사회	국어	1	기가	국어	사회	영어	과학	1	회화	국어	기가	국어	영어		
	김은영	이혜경	이희문	김은하	이운숙		이희문	이운숙	김은하	조가연	이혜경		조가연	최재은	배자영	최재은	조가연		
2	사회	회화	국어	기가	체육	2	과학	기가	체육	국어	체육	2	체육	도덕	수학	과학	도덕		
	김은하	김경혜	김상은	다니엘	이운숙	이희문	허공숙		이혜경	이희문	김상민	이운숙	김상민		김상민	한수정	이혜용	이혜경	한수정
3	국어	영어	영어	수학	수학	3	이혜용	이혜경	이혜용	김은하	이운숙	3	국어	사회	과학	예1	수학		
	이운숙	조가연	조가연	김은영	김은영		국어	도덕	예1	수학	회화		최재은	김은하	이혜경	김금선	이혜용		
4	예1	국어	도덕	도덕	과학	4	이운숙	한수정	김금선	이혜용	조가연	김상은	다니엘	4	수학	수학	예2	영어	사회
	김금선	이운숙	한수정	한수정	이혜경		진로	선택	예3	선택	도덕		이혜용	이혜용	조세형	조가연	김은하		
5	과학	선택	예3	선택	진로	5	김상민	김상민	공세진	김상민	한수정	5	진로	선택	예3	선택	과학		
	이혜경	김은하	황성하	김은하	김상민				영어		수학		조세형	조세형	이상진	조세형	이혜경		
6	체육		예2			6	▽	▽	조가연	▽	이혜용	6			체육		기가		
	허공숙	▽	조세형	▽	▽		독서		예2		동아리		▽	▽	김상민	▽	배자영		
7	독서		수학		동아리	7	독서		예2		동아리	7	독서		국어		동아리		
	김은하		김은영				최재은		조세형				김상민		최재은				



행복한 삶의 첫걸음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며

**2013학년도 자유학기제 학사일정**      **2학기(2013년 8월 - 2014년 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	목	입	화	금	입	수	토
2	금	월	수	토	월	목	일
3	토	화	목	일	화	금	월
4	일	수	금	월	수	토	화
5	월	목	토	화	목	일	수
6	화	금	일	수	금	월	목
7	수	토	월	목	토	화	금
8	목	일	화	금	일	수	토
9	금	월	수	토	월	목	일
10	토	화	목	일	화	금	월
11	일	수	금	월	수	토	화
12	월	목	토	화	목	일	수
13	화	금	일	수	금	월	목
14	수	토	월	목	토	화	금
15	목	일	화	금	일	수	토
16	금	월	수	토	월	목	일
17	토	화	목	일	화	금	월
18	일	수	금	월	수	토	화
19	월	목	토	화	목	일	수
20	화	금	일	수	금	월	목
21	수	토	월	목	토	화	금
22	목	일	화	금	일	수	토
23	금	월	수	토	월	목	일
24	토	화	목	일	화	금	월
25	일	수	금	월	수	토	화
26	월	목	토	화	목	일	수
27	화	금	일	수	금	월	목
28	수	토	월	목	토	화	금
29	목	일	화	금	일	수	
30	금	월	수	토	월	목	일
31	토	화	목	일	화	금	월

## 4. 자율과정 프로그램 운영 계획

### 가. 선택프로그램 운영

#### 1) 선택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반 편성

학생 선택프로그램 신청현황(2013.7.19.)								학생 선택프로그램 반배정 현황(2013.8.22.)									
창의교구반(A), 경제야 놀자반(B), 발명의 기초반(C) 스포츠 체험반(D), 텀그림반(E), 뮤지컬 체험반(F) <i>*코드를 입력해주세요.</i>								창의교구반(A), 경제야 놀자반(B), 발명의 기초반(C) 스포츠 체험반(D), 텀그림반(E), 뮤지컬 체험반(F) <i>*반명과 코드를 확인해주세요.</i>									
반	번호	이름	9월		10월		11월		12/2월		반	번호	이름	9월	10월	11월	12/2월
			1지망	2지망	1지망	2지망	1지망	2지망	1지망	2지망							
1	1	구준	D	C	E	A	D	F	B	C	1	1	구준	C	D	A	E
1	2	김민서	C	E	E	C	A	B	B	A	1	2	김민서	B	E	A	C
1	3	김건우	C	A	F	B	D	F	E	B	1	3	김건우	C	F	E	B
1	4	김대형	A	B	C	D	E	F	D	F	1	4	김대형	A	C	E	B
1	5	김민수	C	A	F	E	D	B	A	E	1	5	김민수	C	F	A	B
1	6	김이진	C	E	E	D	D	F	F	C	1	6	김이진	C	E	F	D
1	7	김현유	F	A	A	F	B	E	E	B	1	7	김현유	F	A	B	E
1	8	노승후	F	D	E	A	D	C	A	C	1	8	노승후	F	E	A	C
1	9	노지원	F	A	D	F	A	C	C	A	1	9	노지원	F	A	C	B
1	10	박형준	D	C	D	A	D	B	D	E	1	10	박형준	C	B	A	E
1	11	백주원	F	C	B	A	A	F	C	B	1	11	백주원	F	B	C	A
1	12	변유진	C	E	E	D	D	F	F	C	1	12	변유진	C	E	F	D
1	13	서승환	C	A	A	C	D	C	B	C	1	13	서승환	B	A	D	C
1	14	양찬열	C	F	A	C	E	F	B	D	1	14	양찬열	B	A	E	F

#### 2) 선택프로그램 운영 내용

프로그램	운영 내용	담당교사
	[창의교구 1·2반] 다양한 창의력 교구와 협동학습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창의성 향상과 인성 함양	본교교사 /외부강사
	[경제야 놀자 1,2반] 경제 체험 및 다양한 직업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스스로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역량 제고	본교교사 /외부강사
	[발명의 기초 1·2반] 발명의 기초적인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발명에 대한 소질과 흥미를 개발 및 창의력 신장	본교교사

프 로 그 램	운 영 내 용	담당교사
	<p>[스포츠 체험반] 스포츠 활동을 통한 직업사회화와 사회적 기술 체득</p>	<p>본교교사</p>
	<p>[탱그램 1,2반] 다양한 체험과 소통을 통해 미적 감수성과 창의적 표현 능력을 신장하여 '행복한 삶의 향유' 기반 마련</p>	<p>본교교사 /외부강사</p>
	<p>[뮤지컬 체험반] 고전뮤지컬에서 현대뮤지컬에 이르기까지 주요 뮤지컬을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보고 뮤지컬의 내용 및 뮤지컬의 구성요소와 뮤지컬 배우의 역할을 탐색하여 음악극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신장</p>	<p>본교교사</p>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2013 선택프로그램 연간 지도계획 및 교실 구성〉

2013 학생		2013 학생 선택프로그램 지도계획	
순서	활동	지도교사	본교교사 : 김금선 외부강사 : 정선미, 권은숙
프로그램명		명그림반	
순서	활동내용	지도자료	
1	교구 탐색, 세상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기	디바르 -T 교구	
2	내 꿈을 디자인하자	색종이, 색연필, 파스텔	
3	목표를 향해 도전하자. 리더십을 기르자.	색종이, 색연필, 파스텔	
4	나만의 디바르 - T를 만들자	디바르 -T 교구	
5	나의 청소년기 꿈의 작품 그리기	색종이, 색연필, 파스텔	
6	단상에 선 나의 모습. 꿈을 이룬 나의 모습	디바르 -T 교구	
7	대중 작품 만들기, 나의 꿈의 작품 그리기	색종이, 색연필, 파스텔	
8	팀 작품 만들고 발표하기, 친구에게 희망의 메시지	색종이, 색연필, 파스텔	
5	뮤지컬 '시카고'의 줄거리 소개 및 주요내용 탐색	학습지 및 동영상 자료	예시사진, 색필터판 거울 1개 최시사진 PPT 학습지, 도미노 카드 학습지
6	뮤지컬 '시카고' 내용 탐색 및 시사점 토의 및 발표	학습지 및 동영상 자료	학습지, PPT
7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의 줄거리 소개 및 주요내용 탐색	학습지 및 동영상 자료	퀴즈학습지 교사 PPT
8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내용 탐색 및 시사점 토의 및 발표	학습지 및 동영상 자료	포장지, 색종이 스카치테이프, 크레파스 T 파종 종이 학습지
9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줄거리 소개 및 주요내용 탐색	학습지 및 동영상 자료	주령구 종이 전개도 가위, 점력제
10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내용 탐색 및 시사점 토의 및 발표	학습지 및 동영상 자료	
6	발명의 기초는 정역력! 정역력 키우기 실습 1 : 마법의 거울	발명의 기초는 정역력!	
7	정역력 키우기 제작 실습 2 : T 파종	발명의 기초는 정역력!	
8	정역력 키우기 제작 실습 3 : 주령구 만들기	발명의 기초는 정역력!	



## 나. 진로 프로그램 운영

### 1) 진로 프로그램 운영

회차	시간	진로 프로그램 운영 내용	비고
1	2	나의 이해 및 진로탐색	자기 이해 및 표준화 검사 자료
2	2	나의 생애 설계	진로포트폴리오
3	2	학급별 꿈판 만들기	교내시상, 전시회
4	2	미래 나의 모습 그리기	교내시상, 전시회
5	2	직업카드 만들기	교내시상, 전시회
6	2	나의 미래 명함 만들기	교내시상, 전시회
7	2	대전공고 체험(A)	A→B→C→D 순서로 학급별 순환
8	2	제과제빵 만들기(이화요리학원)(B)	
9	2	솔로몬 로파크(법체험)(C)	
10	2	대덕밸리 연구단지 체험: 소규모 활동(D)	
11	2	직업체험(잡월드) 보고서 쓰기(경진대회)	교내시상, 진로포트폴리오
12	2	반별 나의 꿈 발표(프리젠테이션) 대회 준비	우수자 학년/교육청 대회
13	2	직업인 초청 강연	진로포트폴리오
14	2	소중한 나를 찾아가는 날	진로인성자료 소나기
15	2	진로포트폴리오 경진대회	교내시상, 전시회, 진로포트폴리오
16	2	진로진학박람회 체험 토론회 개최	소감문, 진로포트폴리오
17	2	창업계획서 및 진로계획서 작성	진로포트폴리오

### 2) 진로 독서 활동

#### 가) 진로 독서 활동 차시별 계획

시 간	독서활동 운영 내용	비고
1~2	책속의 주인공과 자신과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적어보기	독서활동 자료 1
3~4	책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골라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작성해보기	독서활동 자료 2
5~6	읽은 책에 대한 특징과 재미있는 내용 적어보기	독서활동 자료 3
7~8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려보고 장면 설명해 보기	독서활동 자료 4
9~10	등장인물들의 생김새나 특징을 살려서 별명 지어 보기	독서활동 자료 5
11~12	등장인물 중 칭찬할 만한 사람을 찾아 나만의 상장 만들어 보기	독서활동 자료 6
13~14	책을 읽은 후 재미있었던 부분을 문제로 만들어 보기	독서활동 자료 7
15~16	책의 이름을 바꾸어보기	독서활동 자료 8
17	독후활동 정리	포트폴리오

## 나) 진로 도서 목록

번호	도서명	지은이	출판사
1	말 더듬이 선생님	시케마츠기요시	웅진지식하우스
2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3	변화하는 청소년과 직업세계	야지마 마사미 외	북코리아
4	국제기구 인턴십 분투기	이종현	하다
5	꿈꾸는 다락방1,2	이지성	국일미디어
6	청소년을 위한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오정택	국일미디어
7	10대 너의 배움에 주인이 되어라	양희규	글담
8	꿈이 있다면 멈추지 않는다	김찬영	은행나무
9	창조적 열정을 지닌 청소년,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인디고 아이들	궁리출판
10	내 꿈에 국경은 없다	박희정	이텐슬리벨
11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김수지	집사재
12	잡스처럼 꿈꾸고 게이트처럼 이뤄라	이창훈	머니플러스
13	부키 전문직 리포트(18권)		부키
14	꿈보다 먼저 뛰고 도전 앞에서 당당하라	한유정	위즈덤하우스
15	진학보다 진로를 먼저 생각하는 10대들의 미래지도	강보영	노란우산
16	나는 한국의 가능성이고 싶다	조현영	북하우스
17	16살, 네 꿈이 평생을 결정한다 1,2,3	김재현	팝콘북스
18	만화로 보는 직업의 세계	와이즈멘토	동아일보사
19	내꿈은 내가 만든다	삼성사회정신 건강연구소	교육과학사
20	꿈을 찾아주는 진로네비게이터	정효경	마리북스
21	애널리스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직업	용대인	페이퍼로드
22	미대 나와서 무얼할까? 1,2	박정준	안르라픽스
23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10년 후 뜨는 직업 선택 전략	민진규	글로세움
24	내 인생을 바꾸는 대학	로렌 포프	한겨레출판
25	대학학과선택, 고민하고 있니? 1,2	편집부 저	책으로만든별
26	나는 나의 꿈이다	윌리엄 레메르지	이숲
27	당신의 인생은 일보다 길다	폴라 외	중앙일보조인스랜드
28	내가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리처드 브랜슨	리더스북

## 다.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분야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9월	10월	11월	12월
탐구	발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명아이디어 기법 익히기</li> <li>개인발명주제 설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명아이디어 기법익히기</li> <li>개인 발명주제 중간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 발명품 발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리 발표회 준비·발표</li> </ul>
방송	방송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송의 기초</li> <li>방송실 기자재 교육 (기능학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송실 기자재 교육 (사용법)</li> <li>영상물 제작의 기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상물 제작 기획</li> <li>영상물 촬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상물 편집방법 및 편집</li> <li>영상물 제작 발표</li> </ul>
진로	진로 동아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 사전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래 마을(사회)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로의사결정</li> <li>진로 계획 수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리 공동의 전시회 준비 및 전시</li> </ul>
창의력	보드 게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드게임에 대한 원리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드게임을 이용한 수리력 기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드게임을 이용한 공간지각력 기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가 만든 보드게임</li> </ul>
미술	만화 캐릭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캐릭터 구상/그리기</li> <li>전시작품 구상/그리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컷 만화 그리기</li> <li>작품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편만화 그리기</li> <li>작품공유 및 감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품 소개 및 감상</li> </ul>
문예	독서 감상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캐릭터그리기/편지쓰기</li> <li>독서퍼즐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절에 맞는 시 창작하기</li> <li>읽기자료 통독 후 자기의견 작성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캐릭터그리기/편지쓰기</li> <li>독후활동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명작가와 만남 만나보기 (인터뷰자료 이용)</li> <li>독서퀴즈 풀기</li> </ul>
음악	합창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성연습과 표현하기</li> <li>님이 오시는지</li> <li>글로리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성연습과 표현하기</li> <li>님이 오시는지</li> <li>글로리아(축제 참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성연습과 표현하기</li> <li>상투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제 발표회 연주 연습</li> </ul>
	현악 합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케일 및 아르페지오 연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장조의 악곡 연주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표가 있는 악곡 연주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성연습과 표현하기</li> <li>상투스</li> </ul>
체육	볼링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볼링의 역사 및 경기 규칙</li> <li>경기 방법 및 스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드레스 동작부터</li> <li>폴로스루 동작</li> <li>볼링대회 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 운영</li> <li>스페어 처리 기술 익히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합 평가 경기 실시</li> </ul>
	축구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구의 기초기능 체득 (사회적 책임감 모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구의 경기기능 체득 (스포츠교육모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구의 경기기능 체득 (스포츠교육모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구 리그전 개최</li> </ul>
	댄스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기 익히기 (웨이브 1)</li> <li>기본기 익히기 (웨이브 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기 응용(웨이브 1+2)</li> <li>방송 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트별 영상찍기</li> <li>파트별 감상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리 발표회 / 준비발표</li> </ul>
공예	배드민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스텝 익히기</li> <li>경기방법의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매쉬, 드롭샷 연결하여 연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년별 경기진행</li> <li>선후배 경기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아리 발표회</li> <li>최종리그전 진행</li> </ul>
	리본 공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포푸리 감상하기</li> <li>나만의 포푸리 디자인 하기</li> <li>밀짚모자 포푸리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거울 감상하기</li> <li>나만의 거울 디자인하기</li> <li>리본 거울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핸드폰 고리 감상하기</li> <li>나만의 핸드폰 고리 디자인하기</li> <li>포도 핸드폰 고리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크리스마스 리스 감상하기</li> <li>나만의 크리스마스 리스 디자인하기</li> <li>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li> </ul>
	미니어처 공작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종이를 이용한 미니어처 공작</li> <li>프라 모델의 세계 탐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송 기계 미니어처 공작</li> <li>동, 식물 미니어처 공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양 건축물 미니어처 공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나라 한옥 미니어처 공작</li> </ul>
	생활 공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 공예반 소개</li> <li>관련 직업의 세계 탐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냅킨아트 공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핑 클레이 공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본 공예</li> </ul>
	십자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십자수 응용하기</li> <li>작품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시작품 완성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십자수 작품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십자수 작품 만들기</li> </ul>

## 라. 예체능 융합 프로그램 운영

### 1) 예체능 융합 프로그램 운영 계획

과목	단 원	주 제	융합 교과	수업 방법	융합 요소
미술	생활 속 시각문화	새로운 표현방법과 매체를 활용한 디자인	음악	수업 자료 지원과 사전 협력 연수	실용 음악 듣고 떠오르는 영상을 활용한 시각 디자인
	미술 관련 직업 세계	주변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미술 직업 탐색	체육	수업 자료 지원과 사전 협력 연수	미술 관련 직업의 세계를 “판토마임”으로 표현
	행복한 미술 감상	미술 감상 “UCC” 제작	음악	co-teaching (방문 지원)	작품과 어울리는 음악 선정
음악	이야기가 있는 음악	그림 속의 음악	미술	수업 자료 지원과 사전 협력 연수	그림 속에서 연주하고 있는 음악에 대해 토론해 보고 악기의 특성과 소리 알아보기
	영상 속의 음악	스포츠와 음악	체육	수업 자료 지원과 사전 협력 연수	음악이 사용되는 스포츠를 통해 음악이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체육	농구	농구의 경기 예절	도덕, 기술·가정	수업 자료 지원과 사전 협력 연수	농구의 경기 예절을 알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 2) 예체능 융합 프로그램 교수·학습 지도안

( 체육 )과 교수·학습 지도안

교과	체육	학년	1	진로성취 기준	■ 스포츠 관련 진로의 종류와 준비 과정을 알 수 있다.		
학습주제	농구의 경기 예절 익히기			차시	16/16		
학습목표	농구의 경기 예절을 알고 말할 수 있다. 농구의 경기 예절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융합주제	농구의 경기 예절을 알고 표현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융합요소	도덕, 기술 가정		
준비물	스마트폰, 노트북, 기록지			교수학습방법	협동 학습		
학습단계	교수·학습 활동			융합인재소양	시간	자료 및 유의점	
	교사		학생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결확인</li> <li>▶전시학습 확인</li> <li>▶학습목표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결확인</li> <li>▶전시학습 상기</li> <li>▶본시 학습 목표 숙지</li> </ul>	융합	3분	출석부, 학습목표 숙지 여부 확인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시학습 시 과제로 낸 경기 예절 동영상 준비하도록 한다.</li> <li>▶모듬별 스마트 폰 준비</li> <li>▶전시학습 과제 - 경기 예절에 대해 생각해 보고 모듬별로 경기 상황에 예절을 지키지 않는 상황들과 예절을 잘 지켜 원활한 경기 진행이 된 상황을 촬영하기.</li> <li>▶노트북을 통하여 전체학생에게 상영하고 모듬 대표를 통하여 상황 설명, 나머지 학생들은 잘못된 점을 찾아 기록지에 기록하고 발표하도록 한다.</li> <li>▶경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예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파울(unsportsmanlikem foul):경기 규칙의 정신과 의도를 벗어난 정당한 플레이를 할 의도가 없는 파울.</li> <li>- 고의적이지 않은 신체 접촉에 의한 반칙</li> </ul> </li> <li>▶경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예절을 실생활(학교생활)에서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도에서 서로의 부주의로 부딪힌 경우, 고의적으로 상대를 괴롭힌 경우, 고의성이 없이 다른 학생들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심한 장난을 한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 표현하기</li> </ul> </li> <li>▶모듬별로 발표하기</li> </ul>			융합 (도덕, 기술 가정)  소통  존중  소통	37분	모듬별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모듬별 조장의 역할 중요성 강조 발표 시 주의집중  기록지에 적용 사항 기록 지시	
	확인 및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 규칙을 준수하였는가?</li> <li>▶경기 중 스포츠맨십에 위배 되는 상황은 없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록지에 정확히 기록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자신의 각오 기록하기</li> </ul>		창의 존중	5분

## II.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평가 시행 계획

### 1. 교수·학습 방법 개선 계획

#### 가. 국어과 1학년 지도 계획

	지도 단원	교과 내용	교수학습방법	진로성취지표
국 어	정보의 세계 (1) 설명하는 글 읽기	일상생활에서의 지문활용	프로젝트학습	MII 1.1.1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일의 유형과 직업 경로를 설명할 수 있다.
	2. 세상과 주고받는 글 (1) 자료가 있는 글 읽기	새 주소에 담긴 원리	실 습	MIII 2.1 구체적인 직업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한다.
	3.문학과 비평 (2) 문학 작품 평가하기	조선시대의 직업	조사학습법	MII 1.2.2 새로운 직업과 사라진 직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생각의 나눔 (1) 토의하기	봉사활동 제도화의 장단점과 개선방안	협동학습	MI 1.2.1 여러 가지 방법(직업심리검사, 중요한 타자에 의한 평가)으로 자신의 적 성을 파악할 수 있다.

#### 나. 영어과 지도 계획

	지도 단원	교과 내용	교수학습방법	진로성취지표
영 어	Lesson 7. Good Here, Bad there 소단원: Let's Read	문화의 차이이해	토론 학습	MI 1.2.3 자신의 적성과 흥미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Lesson 8. Snow Night 소단원: Project Work	여가생활	역할 놀이	MIII 2.2 여러 직업에 대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직업 이해에 활용한다.
	Lesson 9. The Broken Window 소단원: Project Work	장래희망	프로젝트 학습	MIV 2.1.1 자신의 미래진로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다.
	Lesson 10. My Visit to Ancient Korea 소단원: Project Work	외국인을 통해 본 우리문화	프로젝트 학습	MII 1.2 사회변동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를 이해한다.
	Lesson 11. The Cleverest Son 소단원: Project Work	삶의 지혜와 관련된 예날 이야기	토론 학습	MII 2.1.2 직업 생활에서 윤리의식의 중요 성을 설명할 수 있다.

## 다. 수학과 지도 계획

	지도 단원	교과 내용	교수학습방법	진로성취지표
수학	VI. 통계	·표와 그래프 ·도수분포표에서 평균과 상대도수	조사 학습	M I 1.2 자신의 적성 및 흥미를 다양하게 탐색한다.
	VII. 도형의 기초	·기본도형 ·위치관계	조별 학습	M I 2.1.2 서로 다른 생각, 감정, 문화 등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VIII. 작도와 합동	·삼각형의 작도 ·삼각형의 합동	모듈 학습	M II 2.1.1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IX. 평면도형	·다각형 ·원과 부채꼴	프로젝트 학습	M I 2.2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X. 입체도형	·입체도형의 관찰 ·입체도형의 겹넓이와 부피	협동 학습	M III 1.1.2 학업 성취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할 수 있다.

## 라. 과학과 지도 계획

	지도 단원	교과 내용	교수학습방법	진로성취지표
과학	V. 열과 우리생활 소단원: 열에너지의 이용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탐구 학습	M I 1.1 다양한 직업유형과 진로 경로를 이해한다.
	VI. 분자운동과 상태변화 소단원: 분자의 운동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	탐구 학습	M III 2.1.1. 다양한 방법과 자료를 통해 원하는 직업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VI. 분자운동과 상태변화 소단원: 물질의 상태변화	상태변화와 열에너지	협동 학습	M III 2.1 구체적인 직업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
	VII. 수권의 구성과 순환 소단원: 해수의 성질	우리나라 주변의 염분 분포	탐구 학습	M III 1.1.1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일의 유형과 직업경로를 탐색할 수 있다.
	VII. 수권의 구성과 순환 소단원: 해수의 성질과 해양자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토론 학습	M II 2.2.1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직업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자질 수 있다.

## 마. 사회과 지도 계획

	지도 단원	교과 내용	교수학습방법	진로성취지표
사 회	Ⅲ.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소단원 : 건조지역에서의 생활	기후와 주민생활	협동 학습	MII 1.2 사회변동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를 이해한다.
	Ⅳ.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소단원 :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 경관	기후환경과 자연경관	협동 학습	MII 1.2 사회변동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를 이해한다.
	Ⅺ.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소단원 :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협동 학습	MIII 2.2 여러 직업에 대해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직업 이해에 활용한다.
	ⅩⅢ. 정치 과정과 시민참여 소단원 : 민주주의 꽃, 선거	선거 제도와 의의	프로젝트 학습	MIII 2.2 여러 직업에 대해 정보를 수집 · 분석하여 직업 이해에 활용한다.
	X Ⅲ. 경제생활의 이해 소단원 : 기회비용과 합리적 선택	경제주체로서 합리적인 선택	프로젝트 학습	MII 2.2.1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직업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X Ⅳ. 시장 경제의 이해 소단원 : 가격의 결정과 변동	수요, 공급과 가격의 변동	문제 중심 학습	MII 2.2.1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직업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 바. 기술·가정과 지도 계획

	지도 단 원	교 과 내 용	교수학습방법	진 로 성 취 지 표	
기 술 · 가 정	Ⅲ. 청소년의 자기 관리	1. 청소년의 시간 관리	토론 학습	MI 2.2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MII 2.1.1 자신이 가진 여러 가지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MIII 2.3.2 고정관념을 극복한 사례 탐색을 통해 직업에 대한 개방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2. 청소년의 소비 생활	조사 학습법		
		3. 청소년의 복지 서비스	조사 학습법		
	Ⅳ. 기술과 발명	1. 기술의 이해	기술의 의미/ 발명방법		프로젝트 학습
		2. 문제 해결과 방법			문제 중심 학습

### 사. 도덕과 지도 계획

	지도 단 원	교 과 내 용	교수학습방법	진 로 성 취 지 표
도 덕	Ⅱ. 사이버 예절	성숙한 사이버 문화	역할놀이	MI 2.1.1 상황별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
	Ⅱ.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 협동	이웃의 소중함	문제중심학습	MI 2.2.2 공감을 적절히 드러내며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Ⅲ. 문화적 다양성과 도덕	세계 시민 의식 국가 공동체 의식	문제중심학습	MI 2.1.2 서로 다른 생각, 감정, 문화 등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Ⅲ.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남북 분단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협동학습	MI 2.1.2 서로 다른 생각, 감정, 문화 등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Ⅳ. 삶의 소중함과 도덕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	모듈학습	MI 1.1.1 스스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자기평가를 할 수 있다.

## 아. 예술·체육과 지도 계획

	지도 단원	교과 내용	교수학습방법	진로 성취 지표
체 육	Ⅲ. 영역형 경쟁 활동 소단원: 농구 문화의 이해	세계 농구 문화의 이해	토론 학습	MⅢ 2.1 구체적인 직업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
	Ⅲ. 영역형 경쟁 활동 소단원: 농구의 기본기능 익히기	농구의 기본기능 익히기	협동 학습	M I 2.2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Ⅲ. 영역형 경쟁 활동 소단원: 농구의 경기기능 익히기	농구의 경기기능 익히기	역할 놀이	MⅡ 2.1 직업 생활에서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Ⅲ. 영역형 경쟁 활동 소단원: 농구 경기전술의 이해	농구의 경기전술 익히기	조사 학습법	MⅡ 2.2.1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직업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Ⅲ. 영역형 경쟁 활동 소단원: 영역형 경쟁 활동의 가치	영역형 경쟁 활동의 가치이해하기	토론 학습	MⅡ 2.2.1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직업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음 악	1. 이야기가 있는 음악	판소리와 창극	모둠별 학습	M I 1.2 자신의 적성 및 흥미를 다양하게 탐색한다.
	2. 함께 부르는 사랑의 노래	중창, 합창곡 배우기	협동 학습	M I 1.1.2 자신이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설명할 수 있다.
	3. 신나는 악기여행	단소, 리코더 연주하기	개인별 학습	M I 2.2.2 공감을 적절히 드러내며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4. 악기 음식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여러 종류의 음악 감상하기	토론 학습	MⅢ 2.2 여러 직업에 대해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직업 이해에 활용한다.
	5. 영상 속의 음악	영화, 드라마, 광고에 사용되는 음악	모둠별 프로젝트 학습	MⅡ 1.1.2 직업이 갖는 개인적·사회적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미 술	생활 속 시각문화	풍경화로 (벽장식) 표현하기	실습	MⅢ 2.2.1 직업체험을 통해 직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소통, 나눔의 아름다움	나의 미래 직업 캐릭터	프로젝트 학습	MⅣ 2.1.1 자신의 미래진로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미술 관련 직업세계	다양한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역할	프로젝트 학습	MⅡ 1.2 사회변동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를 이해한다.
	재미있는 미술 여행	우리고장 축제여행 기획하기	프로젝트 학습	MⅡ 2.2.1 사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직업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행복한 미술 감상	나도 큐레이터	프로젝트 학습	MⅡ 2.2 직업 생활에 대해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 2. 평가 시행 계획

### 2013학년도 대전외삼중학교 1학년 교과별 평가 계획(2013.9.1.)

- ◆ 학생들의 학습 성취 수준 확인 결과는 '학생의 꿈과 끼와 관련된 활동 내역'을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서술식으로 기재함.
- ◆ 2학기 특정기간에 실시하는 중간, 기말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과목	평가 반영	1학기				2학기	
		지필평가		수행평가	합계	지필평가	수행평가
		중간	기말	학기말반영		중간,기말	
국어	만점점수	100점	100점	20	100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의 짜임분석하기</li> <li>▶ 생활문쓰기</li> <li>▶ 소설 평가하기</li> <li>▶ 토의토론하기</li> </ul>
	반영비율	40%	40%	20%	100점	미반영	
영어	만점점수	100점	100점	40점	100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 보고서</li> <li>▶ 파티초대장역할극</li> <li>▶ 문법마인드맵</li> <li>▶ 우리문화홍보포르폴리오</li> <li>▶ 소설이어쓰기</li> <li>▶ 지도제작, 마인드맵</li> <li>▶ 독서감상문</li> <li>▶ 모둠 보고서</li> <li>▶ 파티초대장역할극</li> <li>▶ 문법마인드맵</li> <li>▶ 연극 PPT 제작</li> <li>▶ 이야기재구성(만화)</li> </ul>
	반영비율	30%	30%	40%	100점	미반영	
수학	만점점수	100점	100점	20	100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트검사</li> <li>▶ (통계)보고서 작성</li> <li>▶ (위치관계)마인드맵 작성</li> <li>▶ (기본도형 작도)보고서 작성</li> <li>▶ 단원형성평가</li> </ul>
	반영비율	40%	40%	20%	100점	미반영	
사회	만점점수	100점	100점	20	100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고서</li> <li>▶ 관광안내 자료 제작</li> <li>▶ 선거홍보 자료 제작</li> <li>▶ 경제기가 스크랩</li> <li>▶ 서술형 평가</li> <li>▶ 마인드맵</li> <li>▶ 자기성찰평가</li> </ul>
	반영비율	40%	40%	20%	100점	미반영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1학기				2학기	
과목	평가 반영	지필평가		수행평가	합계	지필평가	수행평가
		중간	기말	학기말반영		중간,기말	
과학	만점 점수	100점	100점	30	100점	없음	▶ 서술형 평가 ▶ 실험보고서
	반영 비율	35%	35%	30%	100점	미반영	▶ 마인드맵 ▶ 실험·실습
도덕	만점 점수	100점	100점	30	100점	없음	▶ 단원 형성평가 ▶ 활동 보고서
	반영 비율	35%	35%	30%	100점	미반영	▶ 통일신문 만들기 ▶ 자기사랑보고서
가·가	만점 점수	100점	100점	30	100점	없음	▶ 역할극 ▶ 보고서
	반영 비율	35%	35%	30%	100점	미반영	▶ 제품 제작 실습 ▶ 마인드맵
음악	만점 점수	100점	100점	70	100점	없음	▶ 개별 가창 ▶ 모듈별 상호 실기 평가
	반영 비율	미 실시	30%	70%	100점	미반영	▶ 모듈별 연주 능력 평가 ▶ 발표능력 및 보고서 평가 ▶ 모듈별 영상제작 결과물 평가
미술	만점 점수	100점	100점	70	100점	없음	▶ 창의작품 구상 계획서 ▶ 창의작품 제작
	반영 비율	미 실시	30%	70%	100점	미반영	▶ 미술과 직업 보고서 ▶ 서술형 평가 ▶ 감상 보고서
체육	만점 점수	100점	100점	80	100점	없음	▶ 개인별 기초기능 평가:농구
	반영 비율	미 실시	20%	80%	100점	미반영	▶ 개인별 기초기능 평가:도마 ▶ 개인별 기초기능 평가:줄넘기



## 가. 수학과 평가 계획

	지도 단원	핵심성취기준	평가모형	운영일시
수 학	VI.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li> <li>· 도수분포표에서 주어진 자료 평균을 구할 수 있다.</li> <li>· 상대도수를 구하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상대도수의 분포를 이해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트 검사</li> <li>· 보고서제출 (일상생활과 통계)</li> <li>· 단원평가</li> </ul>	수시 (단원별)
	VII. 도형의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 선, 면, 각을 이해하고, 점, 선, 직선, 평면의 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li> <li>· 평행선에서 동위각과 엇각의 성질을 이해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트 검사</li> <li>· 마인드맵 제출 (위치관계)</li> <li>· 단원평가</li> </ul>	수시 (단원별)
	VIII. 작도와 합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li> <li>·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삼각형이 합동인지 판별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트 검사</li> <li>· 보고서제출 (기본도형 작도)</li> <li>· 단원평가</li> </ul>	수시 (단원별)
	IX. 평면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각형의 성질을 이해한다.</li> <li>·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트 검사</li> <li>· 단원평가</li> </ul>	수시 (단원별)
	X. 입체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각형의 성질을 이해한다.</li> <li>·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채꼴의 넓이와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트 검사</li> <li>· 단원평가</li> </ul>	수시 (단원별)

## 나. 국어가 평가 계획

	지도 단원	핵심 성취 기준	평가 모형	운영 일시
국 어	1. 정보의 세계	· 설명문에 활용된 설명 방식을 파악하고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 단어의 짜임 분석하기 · 제시된 글에 사용된 설명방법 찾기	수시 (단원별)
	2. 세상과 주고 받는 글	· 글이나 매체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다.	· 생활문 쓰기	수시 (단원별)
	3. 문학과 비평	· 작품의 내용 혹은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작품의 창작 의도를 추측하여 작품을 수용할 수 있다.	· 홍길동전 평가하기	수시 (단원별)
	4. 생각의 나눔	· 토의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봉사활동 제도화 의장단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하기	수시 (단원별)

## 다. 과학과 평가 계획

	지도 단원	핵심 성취 기준	평가 모형	운영 일시
과 학	V. 열과 우리 생활	· 일상생활에서 열에너지와 관련된 사례를 전도, 대류, 복사로 설명할 수 있다.	· 중요 사항 서술형 평가	단원 종료 후
	VI. 분자 운동과 상태변화	· 온도변화에 따른 기체의 부피 관계를 알 수 있다.	· 실험보고서	2학기 중
	VI. 분자운동과 상태 변화	· 상태변화 과정에서 열에너지의 출입을 설명할 수 있다.	· 마인드맵 만들기	단원 종료 후
	VII. 수권의 구성과 순환	·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 수 있다.	· 중요 사항 서술형 평가	단원 종료 후
	VII. 수권의 구성과 순환	· 우리나라 주변 해류의 특성과 종류를 알 수 있다.	· 보고서 평가	단원 종료 후

## 라. 사회과 평가 계획

	지도 단원	핵심 성취 기준	평가 모형	운영 일시
사 회	III.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건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의 특징을 알고, 이를 지역의 자연환경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다.	·보고서	수시 (단원별)
	IV.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우리나라의 매력적인 자연 경관을 선정하고, 해당 경관의 특징과 그 경관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관광안내 자료 만들기	수시 (단원별)
	XI.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마인드맵 만들기	수시 (단원별)
	XII.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선거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하고, 선거의 기본 원칙과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및 기관을 탐색할 수 있다.	·선거홍보 자료 만들기	수시 (단원별)
	XIII. 경제 생활의 이해	·경제 활동과 희소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제적 선택의 문제에는 항상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수시 (단원별)
	XIV. 시장 경제의 이해	·수요 법칙과 공급법칙을 바탕으로 시장 균형 가격의 결정 원리를 이해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수요, 공급의 변화가 시장 가격 및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경제기사 스크랩하기, ·자기성찰 평가	수시 (단원별)

## 마. 기술·가정과 평가 계획

	지도 단원	핵심 성취 기준	평가 모형	운영 일시
기 술 · 가 정	III. 청소년의 자기관리	·청소년의 시간 및 스트레스, 소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다. ·다양하고 유용한 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탐색하고, 활용하여 자기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모둠 역할극 ·모둠 보고서	수시 (단원별)
	IV. 기술과 발명	·기술의 의미, 특성, 시스템, 사회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 발명과 특허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과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발명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보고서 ·마인드맵 ·실습	수시 (단원별)

## 바. 도덕과 평가 계획

	지도 단원	핵심 성취 기준	평가 모형	운영 일시
도 덕	II.3. 사이버 예절	·협력하는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단원 핵심 요소 형성평가	단원종료 후 (단원별)
	II.4. 이웃에 대한 배려와 상호협동	·이웃의 의미와 이웃을 배려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활동 보고서	단원 중 (단원별)
	III.2. 문화적 다양성과 도덕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영화 보고서	단원종료 후 (단원별)
	III.4.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인식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통일 신문만들기	단원종료 후 (단원별)
	IV.2. 삶의 소중함과 도덕	·인간의 삶이 유한함을 자각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자기사랑 보고서	단원종료 후 (단원별)

## 사. 영어과 평가 계획

	지도 단원	핵심 성취 기준	평가 모형	운영 일시
영 어	Lesson 7. Good Here, Bad there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작성하여 역할극을 수행할 수 있다. ·문화의 차이를 소개하는 글을 읽고 전체내용과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파티초대장을 쓸 수 있다.	·모둠별 보고서 (문화차이) ·파티초대장 ·역할극(식사) ·중요 문법사항 서술형 평가	수시 (단원별)
	Lesson 8. Snow Night	·미래 계획에 관한 대화 및 약속을 정하는 대화문을 작성하여 역할극을 수행할 수 있다. ·Snow Night를 읽고 이어질 내용을 추측할 수 있다. ·방과후 활동 및 미래계획을 쓸 수 있다.	·문법 마인드맵 (준동사) ·연극 프리젠테이션 ·스토리맵 ·소설이어쓰기	수시 (단원별)
	Lesson 9. The Broken Window	·장래희망에 관한 대화문을 작성하여 역할극을 수행할 수 있다. ·추리소설 The Brown Window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개인생활을 소재로 짧은 글을 쓸 수 있다.	·직업소개보고서 ·장래 희망 포트폴리오	수시 (단원별)

	지도 단 원	핵심 성취 기준	평가 모형	운영 일시
	Lesson 10. My Visit to Ancient Korea	·길 묻고 안내하는 지도를 그리고 대화문을 작성하여 역할극을 수행할 수 있다. ·한옥을 소개하는 안내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기억에 남는 여행지에 대해 엽서에 편지글을 쓸 수 있다.	·우리문화 홍보 포스터 ·지도제작 및 역할극 (길묻기)	수시 (단원별)
	Lesson 11. The Cleverest Son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문을 작성하여 역할극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친구 및 학교행사에 관한 느낌이나 의견을 말하는 대화문을 작성하여 역할극을 수행할 수 있다. ·The Cleverest Son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및 사랑에 대한 주제로 짧은 글을 쓸 수 있다.	·마인드맵 및 시쓰기 ·독서 감상문 ·이야기 재구성 (만화) ·이야기 속의 교훈 찾기	수시 (단원별)

### 아. 예술·체육과 평가 계획

	지도 단 원	핵심 성취 기준	평가 모형	운영 일시
음 악	1. 이야기가 있는 음악	·시조의 초장이나 창작 국악 곡의 한 대목을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다.	·개별 가창	9월
	2. 함께 부르는 사랑의 노래	·지휘에 맞춰 간단한 2부 합창을 할 수 있다.	·모둠별 상호 실기평가	10월
	3. 신나는 악기여행	·바른 주법으로 7학년 수준에 맞는 악곡을 가락 악기로 연주할 수 있다.	·모둠별 연주 능력 평가	11월
	4. 악기 음색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음악을 듣고, 악곡의 종류 및 특징에 따른 음악의 느낌이나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다.	·발표능력 및 보고서 평가	12월
	5. 영상 속의 음악	·소리나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이야기나 장면애 어울리는 간단한 음악을 재구성할 수 있다.	·모둠별 영상제작 결과물 평가	12, 2월
미 술	생활 속 시각문화	·시각문화에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안다.	·창의 작품 구상 계획서	9월
	소통, 나눔의 아름다움	·새로운 표현 방법과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 할 수 있다.	·창의 작품 만들기	10월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지도 단원	핵심 성취 기준	평가 모형	운영 일시
	미술 관련 직업세계	·주변 환경과 인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	·보고서평가 (미술과 직업)	10월
	재미있는 미술 여행	·미술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에 근거하여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서술형 평가	11월
	행복한 미술 감상	·비평 요소와 기준을 활용하여 미술 작품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보고서 평가 (감상)	12월
체 육	영역형 경쟁활동	·농구의 기초기능을 익혀 경기에 활용할 수 있다. ·낮은 드리블과 높은 드리블을 이해하고 경기에 적용할 수 있다. ·세트 슈트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농구 (개인별 기초기능 평가)	2학기 중
	동작 도전 활동	·뽀름의 경기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뽀름의 기초기능 중 다리 별려 뛰기를 할 수 있다.	·도마 (개인별 기초기능 평가)	2학기 중
	심미 표현 활동	·체력운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줄넘기 6종목을 연결해서 실시할 수 있다. (양발모아 뛰기 - 좌우로 별려 뛰기 - 제자리 구보 뛰기 - 앞뒤로 흔들어 뛰기 - 엇걸었다 풀어 뛰기 1도약 2회선 뛰기)	·줄넘기 (개인별 기초기능 평가)	2학기 중

### Ⅲ. 진로·체험 활동 인프라 확보 현황

구분	기관명	체결내용	교과연계내용
협력 기관 활용 (신청중)	한국과학창의재단	창의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콘텐츠 (사이언스올, 창의인성교육넷 자료 이용)	과학
	한국교육개발원	학생 선택프로그램 매뉴얼 및 자료	선택프로그램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미래직업, 직업체험, 성공비결 등 콘텐츠	진로
	한국언론진흥재단	NIE 수업지도안	국어, 도덕, 사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성교육	진로
지역 사회 기관 활용	KTC 평생교육원	창의성교육	선택프로그램, 미술
	솔로몬파크	법체험	진로, 사회
	대전공업고등학교	직업체험	진로, 기술가정
	이화요리학원	직업체험	진로, 가정
	대덕밸리연구단지 (전자통신연구소)	직업체험 및 과학교육(강사초빙)	진로, 과학
	진로진학센터 (대전시교육청)	진로진학박람회	진로, 과학, 기술가정
	한국잡월드	진로 및 직업체험	진로
	대전예술의전당	음악공연, 오페라, 뮤지컬	진로, 음악
	대전시립미술관	미술작품관람	진로, 미술
	유성구청	직업체험 및 독서교육지원	국어, 영어
	YMCA	강사 및 콘텐츠 지원	선택프로그램

#### ● 마무리하며...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가는 사람들의 심정에 대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불안, 공포, 부담감, 외로움, 기대, 설렘 등의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겠지요. 대전외삼중학교가 지금 가고 있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은 영광스럽게도 남들이 먼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자 합니다.

행복한 삶의 첫걸음인 자유학기제의 길을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일동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대전외삼중학교 학생, 학부모와 함께.....





# 자유학기제, FREEDOM FOR WHAT? : 교과에서 역량으로, 역량에서 아이덴티티로!

손 민 호  
(인하대학교 교수)





# 자유학기제, FREEDOM FOR WHAT? : 교과에서 역량으로, 역량에서 아이덴티티로!

손 민 호 (인하대학교 교수)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학교교육에 대한 험란하고도 귀를 솔깃하게 하는 처방들을 보면 뭔가를 기대하다가도 문득 이런 물음이 떠오른다. 뭐가 문제였지? 뭐가 문제이었길래 이 처방을 내렸을까? 자유학기제! 왜 하지? 시범 학교들이 제출한 사례 보고서를 보면서 그 답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아니 내가 머리가 나빠 숨겨진 문맥에 숨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인가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읽어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왜 자유학기인지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발견하기란 어렵다. 새로운 정부가 원하는 정책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에 맞춰줘야지 라는 느낌 이외에 발견할 수 없다. 정작 교육과정과 수업은 왜 그렇게 바뀌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지 못하다. 아래 토론 내용은 앞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 이라기 보다는 나 자신이 스스로 '납득해보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

## I. 중학교급의 교육과정과 문화의 아이덴티티 바로 세우기

오늘날 중학교 학생들이 소위 질풍노도의 정체성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연령대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라는 학교급의 정체성 혼란이 그를

더욱 부채질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는 경험중심의 교육과정과 돌봄을 위한 학급담임제 등을, 그리고 고등학교는 심화선택된 지식 교과와 대입 준비로 그 고유한 정체성으로 정착시켜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중학교는 고등학교와 분리된 20세기 초 이래로 교육과정 및 그 운영 면에 있어서 고등학교의 하위 학교급 쪽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 결과, 작금의 중학교 연령대 학생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은 청소년 시기의 정체성 혼란과 더불어 학교급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중학교 구조적 문제도 한 몫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 말은 분명 보다 그 나이대에 걸맞은 교육과정과 문화를 개척해서 정착시킬 수 있다면 오늘날 중학교 아이들이 겪는 병폐 현상들은 좀 더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급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즉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와 차별된 중학교 학교급만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초등학교급과 고등학교급과는 차별된 정체성, 즉 중학교만의 고유한 교육과정과 문화를 어떻게 바로 세워 나갈 수 있을지 하는 방안이다. 자유학기제의 시도와 과제가 특정 정부의 일시적인 정책이 내놓은 단기적 처방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점에서 재음미해보아야 한다. 여기서, 마침 최근에 불거져온 아젠다, 즉 경험과 지식을 다른 의미에서 포괄하고자 하는 역량, 이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의 논리와 방안들은 그래서 더욱 중학교급에서 탐색하고 시도해볼만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된다(사실 역량기반보다 아이덴티티기반 교육과정이 더 현실적일는지 모른다!).

## II. 기술주의적 교육과정 담론으로의 환원의 위험 I : 어떤 진로교육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은 어디에? - ‘직업’ 교육과 ‘나다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유학기제가 중시하는 진로교육을 가장 손에 잡힐만한 직업교육관련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법’이라는 단기적 처방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가 다양한 진로를 찾지 못하고 한 줄로 서열을 짓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진단해왔다. 진로교육이 활성화된 나라의 경우 우리와 같은 고질병은 그리 심하지 않다는 것이 진단이다(이런 논리를 펴는 전문가들은 북유럽 학교들을 흔히 모델화해왔는데, 여기서 수상한 점은 그들은 이러한 교육문화가 사회가 아닌 학교로부터 비롯된다고 본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중학교야말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이다. 이에 자유학기제를 시도하는 학교들은 직업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여기에도 질문은 실종되어 있다. 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까? 과연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시간을 늘린다면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구현될까?

우선, 자유학기제에서 상정하고 있는 진로교육이 직업교육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개념과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한다. 진로는 특정 직업을 전제로 해서 성립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본다면 자신의 삶의 궤적, 즉 정체성에 관해 자각해 가는 과정이라는 좀 더 커다란 의미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급이 사회화, 즉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준비한 시간이었다면 중학교급은 자신을 찾아나가기 시작한 시기라는 의미에서 자유학기제의 아젠다가 제기되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넓은 의미의 진로! 즉, 나다움을 경험하고 탐색해가는 시간과 경험은 항상

직업 정보의 탐색과 연관되어 있을까? 설령 진로의 의미가 그런 좁은 의미만을 뜻하는 것이어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언제 어디서 진로의 의미를 깨닫게 될까 하는 것은 예단할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주지교과 시간에 느낄 수도 있고 선생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어느 수학교과 전문가는 어렵고 지루한 수학이라도 학생들이 제대로 경험한다면 정서적 감수성을 맛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나다음은 탐색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교사 또는 동료 학우들 간 정서적 유대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와 자기애를 맛보게 된다. 물론 그러한 정서적 유대는 생활 지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심지어 교과 내용을 다루면서 지적인 호기심을 공유하는 가운데 긴밀하고 끈끈한 유대감과 자신을 느낄 수도 있다. 어느 심리학자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일에 몰입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물론 오늘의 진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얼마나 지적인 호기심을 조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지만 말이다.

예컨대 자유학기제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학교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기에 앞서 몇 가지 질문을 공유해 보았으면 한다. '내가 이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시간에 참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서적 동기를 학생들은 가지고 있는가? 참된 지식에 대한 배움이라면 그것은 항상 실천으로서, 실천과 함께, 실천으로 공유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천으로 공유되는 이상 정체성 경험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나다음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육과정과 특별한 교육방법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 아닐지 모른다. 협동학습이나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리고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학생 개개인이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성장이 주변으로부터 돌보아지고 있다는 정서적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한 정서적 경험의 기획은 아마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지 모른다.

### Ⅲ. 기술주의적 교육과정 담론으로의 환원의 위험 II : 매뉴얼 조직에서 인격체로서의 공동체로!

학생들이 아이덴티티를 느끼도록 하는 유일한 장치 가운데 하나는 학교조직을 소위 공동체화하는 것이다. 정체성 경험은 학생 자기 자신만의 문제이기 이전에 공동체라는 장치가 더욱 확고해짐으로써 성립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관해 느끼고 경험하고 그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과정 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조직을 어떻게 공동체화하는가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교육개혁가들에 의해 오랜 동안 지적되어온 바다. 많은 교육개혁가들은 학교도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인격체라는 점 그리고 학교 개혁에서는 항상 이 점이 간과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학교도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은 그 조직이 매뉴얼에 의해서 작동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구성원들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특유의 문화를 갖는 조직체라는 점을 뜻한다. 그래서 일부 학교 개혁 운동에서는 교육과정과 수업과 관련된 노하우 이전에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도 최근에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구성원들간 상호작용방식 또는 학교나 학급 가버넌스 형태에 관해서 많은 탐구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격체로서의 학교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문은 제도와 방안을 바꾸는 것보다 추상적인 질문으로 비춰질지 모른다. 그렇다면 최근 조직혁신을 화두로 삼는 기업으로 눈을 돌려보자. 일부 기업들은 과거 산업조직체에서 벗어나 소위 지식기반시대에 알맞은 조직 형태로 혁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성원들의 암묵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은 그 가운데 하나다. 넓은 의미의 암묵지란 특정 지식이나 기술에 관한 노하우와 함께 인격적 정서를 지칭한다. 최근 지식기업들이 조직 문화를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더욱 가속화되기도 하였다. 기업들도 고민하는 마당에 하물며 학교가 이러한 점에 관해 고민하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들은 여전히 교육과정과 수업방법이라는 ‘매뉴얼’에 관해 고민한다. 물론 행정 지침 성격을 보다 명확히 담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오랫동안 교육 개혁 담론은 교육과정 영역 안에서 다루어져 왔다. 교육부나 교육과정 문서와 같이 제도 운영을 관리하는 입장 또는 관점에서 학교 풍토를 바꿔라 구성원들간 소통방식을 바꿔라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래서 시수를 어떻게 조정하고 교과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이며 어떤 수업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자는 구체적인 매뉴얼로 제시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교육과정 이론에는 교사 배제(teacher proof)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것은 관리 당국이 일선 학교로부터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조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설계는 국가와 전문가가 그리고 그 효용성에 대한 증명은 현장의 교사가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여러 차례 소위 ‘과잉적재’된 교육과정 개정 정책들을 경험하면서 교사 배제 교육과정이 결코 효율적인 전략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일단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 개정된 교육과정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를 어떻게 바꿀까 하는 ‘기술주의적’ 담론과 혼선만 무성하기 때문이다.

토론자가 보기에, 우리나라 교육과정 정책의 맹점은 학교교육에 대한 기획 설계에 관한 모든 문제를 좁은 의미의 교육과정(또는 수업), 즉 지침 매뉴얼의 문제로 환원시켜 다룬다는 점이다. 즉, 가버넌스, 의사결정, 풍토 조성, 구성원간 소통과 상호작용 등의 사안들까지도 교육 내용, 시간과 방법 등의 문제로 다룬다. 물론 학교 개혁의 담론이 학교 교육과정을 바꾸는 데 집약되는 현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 문서에 담긴 내용들이 그나마 현장의 실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정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범학교 보고서들에는 학교 개혁 관련 담론이 교육과정과 수업 방법에 관한 명시지의 뒷에 걸려 피상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회자되는 반면, 정작 구성원들간 암묵지와 정서의 공유에 관한 고민과 궁리는 실종된 상태다. 문제는 그러한 질문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거나 하는 점을 따지기에 앞서 수많은 처방들을 끌어온다고 해도 여전히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재하거나 부정적이라면 '방법'들에 관한 노력과 처방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러한 방법들만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학교들 입장에서는 투입 대비 성과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과 평가가 줄을 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 아젠다가 바뀌면 이전의 처방은 망각된 채 새로운 처방을 찾아 도입하느라 분주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교과 내용이나 시간을 재구성하고 보다 더 많은 활동 프로그램을 배치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지난한 주문 리스트들이 현장에서 반영되어 실현 되었을 때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상태는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자.



# 자유학기제 정책과 연구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언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자유학기제 정책과 연구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제언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I.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방안 탐색 (황규호 교수님)” 에 대한 토론

### 1. 자유학기제 성격과 자유학기제 운영 모형과의 관련성

발표자는 자유학기제 정책을 ‘자유’라는 측면에서 다섯가지로 분석하고 이를 자유학기제 4개 모형과 각각 다음과 같이 관련시켰음.

자유학기제의 ‘자유’의 성격		자유학기제의 4개 모형과의 관련
1. 교육과정 편성시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을 지원하는 교육	→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
2. 교과 외 학습경험의 활성화와 관련된 자유, ‘자유 탐구,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교육	→	‘동아리 활동 중점 모형’, ‘예술·체육 중점 모형’
3. 수업 및 평가의 혁신을 위해 ‘자유로운 창의 사고’를 지원하는 교육	→	4개 모형 모두에 관련됨
4. 진로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자유로운 꿈’을 지원하는 교육	→	‘진로탐색 중점 모형’
5. 학교 풍토의 혁신과 관련 ‘자유로운 학습 공동체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	→	4개 모형 모두에 관련됨

- 자유학기제의 수식어 ‘자유’의 의미를 교육의 실제와 관련하여 분석한 점에 의의가 있음.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자유학기제의 특성에 대한 수사적 표현으로 이해됨.

- 다섯가지 자유학기제 ‘자유’의 특성은 모형별로 달라질 것이 아니라 모든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관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됨. 더 나아가 이 ‘자유’의 특성은 자유학기제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 전반에서 추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 2.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안 및 연구학교 운영 분석 결과

- 발표자는 교육부의 4가지 모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전적으로 같은 의견임.  
“자유학기 교육과정 운영 모형의 유형 구분 기준과 명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가능한 유형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고, 또한 각각의 유형들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 다만, 교육부가 기 제시한 모형도 상세한 편이고(4개 운영 모형, 8개 예시), 교육부 정책 자료가 한번 발표되고 배포된 후에 연구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관심있게 학습했을 가능성이 있는 터라, 새로운 유형화를 위해서는 초기 모형을 상쇄할 정도의 이론적 실제적 타당성이 제기되어야 할 것임. 발표자가 제안한 ‘운영시간 확보 방안’,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측면’을 중심으로 구분한 p. 12의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유형(예시)은 기존 교육부 발표 모형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3.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및 향후 과제

발표자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과정에서 고려할 유의사항으로 다음 세 가지를 논함.

- (1) '기본교과'에 대한 학업성취도 저하 우려 해소
- (2) 학교 교육 혁신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확대 필요
- (3) 연구학교 자유학기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지원 추진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이의 해결 방안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하거나 보완되는 의견을 제시함. 첫째, '기본교과'의 핵심 성취기준의 재조정은 양적인 감축도 중요하며, 감축의 질적 양적 문제보다는 타 학기에 핵심 성취기준을 어떻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봄. 발표자께서는 핵심 성취기준이 양적 감축 즉 '덜어내기'에 치중할 것을 우려하면서, 이보다 학생내용의 기본 성격의 명료화 및 내용들의 조직 방식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함. 이는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지적이나, 현재 우리나라 교과 교육과정의 상황에서는 질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면서도 양적인 감축이 병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됨.

또한 학업성취도 저하 우려 문제는 핵심 성취기준 문제 외에도 자유학기에 기본 교과 외의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재미있는' 활동과 수업 방식을 기본교과에서도 적용하여 고르게 모든 활동이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함. 즉, 학생들이 다른 활동에 비해 기본교과시간을 지루한 시간으로 여기지 않도록 할 교육과정과 수업 개선 방안이 필요함.

둘째,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나아가 고등학교까지 중등학교 교육의 변화를 위한 실험적인 정책으로 성공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중학교 3년간의 활동에 대해 적용되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타의 교육혁신 노력들과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중학교의 경우 1/6 즉 1개 학기에 적용되는 자유학기이면서 연구학교 지원 예산은 타 연구학교에 비해 2~3배에 이룸. 그런데 교육과정 운영 및 제 교육활동은 1개 학기와 다른 학기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1개 학기만 다르게 운

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예컨대 학교 단위 및 학년 단위 행사들이 학교에는 많으며, 프로그램 운영도 학년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발표자의 지적대로 ‘학교 교육 혁신의 계기’로 활용될 장점이 많은 만큼 타 학기와의 연계, 타 교육혁신 노력들과의 연계가 필요함.

## II. 사례 발표 “의미있는 쉼표, 교육변화의 첫걸음 (신길중 허은숙 선생님)” 에 대한 토론

발표자는 안산신길중에서 자유학기제를 준비하는 데서 고려한 사항으로 인프라부족, 공교육공백기의 우려, 중1에서의 진로체험교육의 한계, 생활지도상의 공백과 안전의 문제, 일반화 가능성 등 다섯가지 문제를 제시함. 이에 따라 신길중은 교육부 모형중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을 적용하였음을 밝히고, 특징을 제시함.

### 1. 학생 선택프로그램의 특화- 교과 연계 및 진로 교육 강화

- 신길중은 학생 선택프로그램을 수, 목의 1, 2로 구분하여 하나는 교과 연계 프로그램, 하나는 진로적성선택프로그램으로 범교과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함. 월, 화의 예체능 프로그램 또한 체육, 예술을 블록타임으로 구성하여 교과간 연계가 강조되어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린 것으로 보임.

### 2. 나머지 교과들의 문제- 시수의 감축, 다른 변화는?

- 학생 선택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수, 목의 3시간씩 주당 6시간은 6개 교과(국,영,수,과,도,한)에서 각각 시수를 1시간씩 감축한 것임. 이들 교과감축 부분은 선택프로그램의 교과 연계에서 보충된다고 하였으며 의미가 있



으나, 자유학기 중 이 6개 교과를 포함한 나머지 주지 교과들의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특징, 이 교과들과 선택프로그램 등 자유학기 프로그램들과의 관련, 이후 학기와의 연계를 고려한 조치 사항이 보강되어야 할 것임. 또한 학생들의 선택으로 수, 목의 프로그램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때 수업시수 즉 감축된 교과를 프로그램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시하면 타 연구학교에의 적용 및 차후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임.

### Ⅲ. 사례 발표 “Career Compass Program을 통한 재능과 꿈을 키우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동신중 정호경 교감 선생님)” 에 대한 토론

발표자는 광주동신중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의 선행 연구에 기초하되, 다소 여건이 좋지 않고 소외 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의 여건에 맞게 진로탐색 기회를 제시할 것에 초점을 둘 계획임을 밝힘.

#### 1.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수업 및 평가 방법의 변화 도모, C.C.P day를 통한 집중 진로체험 경험

- 기존 교과들을 관련 내용을 유사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단위 재구성 하고, 수업 모형에서도 학생의 참여와 활동 중심이 되도록 함. 자유학기 수행평가 방법과 내용, 성취수준, 노력정도에 대한 종합 표 제시,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는 다른 학교들이 참고하기에 좋은 예임. 수요일 전일제 프로그램을 통해 SCEP 프로그램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2. 교과 변화 도모, 대상과 범위 그리고 자유학기와의 관련은?

- 발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교과간 통합과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수업 시기를 유사하게 하려는 지도시기 재구성의 의도는 매우 바람직함. 그런데 어느 정도 어떤 교과에 대하여 이를 시도하고 있는지 궁금함. 또한 교과 수업시수는 유지된 것인지 감축된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특별히 자유학기에만 가능한 것인지, 다른 5개 학기에도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함. 또한 이러한 교과의 변화를 특별히 자유학기제에서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이유, 근거를 정당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IV. 사례 발표 “행복한 삶의 첫걸음 ‘자유학기제’ 를 시행하며(대전외삼중 배자영 선생님)” 에 대한 토론

발표자는 대전외삼중에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시작한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과정과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에 따른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을 소개함

### 1. 과감한 자유학기 교육과정 재편, 중학교 3년간 전교과, 전학년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 개선을 지향

- 국,사,과,기,체,음,미,영 등 수학, 과학을 제외한 1학년 대부분 교과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창체에서도 새로운 자율과정으로의 편입을 위해 자율 봉사 영역을 제외한 3개 영역을 전체 감축하는 것으로 하여 가독성 높은 편제표를 작성함. 3년 전체 편제표를 보았을 때 자유학기 기간 중 교과

시간 감축분은 다른 학기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과정 즉 학생 선택 프로그램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추정됨.

- 대전 외삼중 자유학기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절차가 좀더 체계적으로 문서화되면 다른 학교에서 이를 벤치마킹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사료됨. 그런데, 수업시수의 이동이 많은 만큼 안산신길중 사례발표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축된 교과 시수를 프로그램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제시하면 타 연구학교에의 적용 및 차후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임

## 2. 선택프로그램 담당을 외부 강사에게도 개방- 연구학교 이후의 모든 학교에 대한 일반화 가능성을 고민해야

- 발표자의 발표에 따르면, 외삼중에서는 시수 감축된 교과의 교사가 해당 시수만큼 선택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진행하도록 함. 그런데 선택프로그램은 '선택'을 위해 다수 개설해야 하므로 외부강사를 투입하여 교사와 함께 팀 티칭 수업이 되도록 함. 선택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선택의 유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학교에서는 바람직한 시도임. 그러나,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에 일부 투입되던 외부 강사 인력이 자유학기제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 수업이 결합된 선택프로그램에 투입되면서 사실상 교과 수업에도 추가적으로 외부 인력을 더 투입하는 것이 됨.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에서의 시도가 2014년 이후의 새로운 연구학교, 희망학교 및 2016년의 전국 모든 중학교에 적용될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시범적이고 연구적인 교육 활동의 질 측면만이 아니라 예산적인 면에서도 지속가능한 것인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Session 3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 (3)

#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에 관한 토론

표혜영

(인천 부평동중학교 교감)





##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에 관한 토론

표혜영 (인천 부평동중학교 교감)

자유학기제가 구체적인 교육과정 실체로서 가동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연구학교 지정 전·후 수개월 자유학기제라는 새로운 교육정책을 놓고 교육계 안팎에서 벌였던 격론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동안 느꼈던 모호함이나 불안감은 이제 상당 부분 견혀 가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 당시 ‘자유’라는 용어가 주는 막막함은 차치하고라도, 국민적 칭찬을 받지 못했던 역대 교육정책들로 비추어볼 때 그다지 새로울 것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5월 초 광병선 박사의, ‘자유학기제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하여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 방향을 제시하는 아름다운 글을, 아프게 읽었습니다. 오래 묵어온 고질적인 교육체질을 교원 개인이 어찌해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장차 자신이 투신할만한 일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찾고, 여기에 몰입할 수 있는 의지와 꿈을 갖는 학생들’로 키우는 일에는 미미하게나마 동참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울림이 컸고, 희망을 걸어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교육과정을 짜야, ‘어떠한 미래 상황에서도 원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 즉 상황주도력을 가진 자유인’을 구현할 수 있을까, 제시된 용어의 개념을 어떻게 교육과정 실체로, 살아있는 프로그램으로 형상화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손에 쥐어야 할 핵심이자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지니는 교육가치,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을 투입했을 때 예상되는 아이들의 반응, 교수-학습의 결과로써 기대되는 행동의 변화 등을 상정하면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교한 자유학기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애썼습니다. 이제 겨우 몇 발짝 떼 데 불과합니다. 턱없이 이른 감이 있고 피상적인 판단일 수 있겠지만 출발 전 많은 이들의 우려에 비해 혼란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들이 아직은 상당부분 존재하며 이를 감수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의 일원으로서 자유학기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면서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2013.5.28.)’에 비추어 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한계와 보완점, 그리고 황규호 박사의 발제문,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에 나타난 실천 가능성과 한계점을 그간의 교육적 경험에 근거하여 살펴봄과 아울러,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 타개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I. 자유학기제 안과 밖, 그 불편한 속내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자유학기제 안과 밖의 감지되는 분위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이란 물론, 연구학교 실행 주체, ‘밖’은 연구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를 비롯하여 자유학기제를 바라보는 교육계 안팎 일반을 지칭합니다. 왜 굳이 안과 밖으로 경계지어 논의를 시작하는가. 이미 ‘실행’ 단계로 돌입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논의에서 무엇보다 귀 기울여야 할 것은 연구학교 추진 당사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42개 연구학교의 목소리가 저마다 다를 수 있겠으나 밖에서 가늠하는 자유학기제와 안에서 체감하는 그것은 많이 다르기 십상입니다. 출발 전의 난상 토론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이미 부분 시행하고 있고 201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더 이상 ‘풍문으로 들려오는 자유학기제’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다듬고 보완해가는 정제된 논의가 필요합니다.



몇 차례의 시행착오와 거듭되는 보완 끝에 탄생된 우리학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은 편성 과정에 들인 수고와 정성이 헛되지 않게 학생들로부터의 반응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학교 측에 속합니다. 학생들은 1학기보다 한층 활기를 보이고 있고 학부모들은 공부습관의 단절, 학력 저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진 못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투입 후 자녀가 보이는 반응에 따른 신뢰감을 표현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기존업무에 고스란히 보태진 자유학기제 업무로 인한 피로감의 위태위태한 접점에서 서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들이 뒤따르겠지만 특히 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노력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에서 감지되는 '밖'의 분위기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므로 정확성을 담보할 순 없겠으나 대체로 두 흐름으로 갈립니다. 모두 자유학기제 도입 배경과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관조하거나 무관심한 분위기, 다른 하나는 '전면 시행까지는 어렵고 선택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 혹은 '곧 거둬들이거나 대폭 축소 운영할 것' 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는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인력 부족', '자율과정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등을 들고 있습니다. 요는 자유학기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는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사 업무가중 측면을 배제하고 본다면 밖의 우려보다 안은 훨씬 '낙관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며 학생의 꿈과 끼를 키워주되 기왕이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자유학기제가 되기 위해 무엇을 더 채우고 덜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가야 합니다.

## Ⅱ.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외형적 모형보다 내용에 배인 본질 보아야

우리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열개를 짜고 실질적인 내부 논의가 거듭되는 과정 어디쯤에선가부터 제시된 자율과정의 네 가지 모형이 잊혀졌음을 밝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유학기제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외형적인 모형은 지엽적인 것이었습니다. 교육과정 재구성에 따른 시간표 구성, 교실 및 운동장 등의 물리적 여건과 교사와 외부강사 등 인적자원 여건에,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맞물리는 일은 구성원 전체의 이해와 협력이 요구되는 만만치 않은 공동작업이었습니다. 하나의 단위학교에 두 개의 교육과정이 기차길처럼 나란히 공존하며 충돌 없이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 교육과정과 일반교육과정이 전·후로 매끄럽게 연동되며 상호 상승작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면서 첫 번째 들었던 의문은, ‘연구학교 운영 영역을 교실수업 개선과 진로·인성교육으로 나누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학기제의 큰 틀에서 본다면 1교시부터 7교시까지의 모든 시간이 목적에 충실한 시간이 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의성과 상상력,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학생활동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은 자유학기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의 위주의 주입식 수업에 마지못해 앉아 있으면서 어서 오후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형국이 아니라, 오전의 기본교과 수업과 오후의 자율과정이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라야 합니다. 자율과정을 통해 발현된 개개인의 생산적인 역동이 활동 중심 교과수업에 탄력을 주고 교과수업을 통해 얻은 창의력과 상상력이 자율과정을 고무시킬 수 있게 작용해야 하며 이것이 축적되면서 선순환의 효용이 커질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창의적 교실수업 개선과 자율과정은 이런 의미에서 ‘동시에’ ‘같이’ 가야(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자유학기를

진로교육 중심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포함하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학교 풍토의 변화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황규호 박사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유학기제는,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생각을 접은 아이들, 발표를 싫어하고 자기 표현을 꺼리는 자존감 낮은 아이들에 투영된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서 나온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방향성을 잃은 아이들이 자유학기 운영 모형에서 공통으로 진로교육을 설정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진로교육은, 예술.체육교육 및 선택프로그램과 나란히 나열해 놓고 중점을 더 두고 덜 두고 할 성격이 아니라, 학생의 전인격적 발달 과정에서 교육적 책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속적인 자극을 가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 교육인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인성교육도 광의의 진로교육 범주에 포함됨을 고려하면, 자율과정에서 진로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체계를 가지고 이수시키도록 기준시수는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 선택프로그램이 곧 동아리 형태를 띠게 되므로 사실상 중첩되는 등 모형 분류상의 오류는 발제문에서 상세히 지적되었으므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의 개성과 적성, 잠재적 열망에 최대한 부응하는 선택프로그램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로.인성은 공통으로 하되 선택프로그램은 각자의 트랙대로 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굳이 ‘모형’이란 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수요자 입장을 우선해야 합니다. 자율과정 시수 마련 문제를 교과교사들의 ‘양해’에 의해 십시일반 덜어내기 식으로 모아진 형태, 혹은 창의적체험활동 집중이수 형태로 풀어갈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현행 평가시스템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학부모의 학력저하에 대한 뿌리깊은 불안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1)주지교과의 정해진 시

1) 본고에서는 편의상 학업성취도평가 시행 교과로 한정함(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수를 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창의적체험활동 역시 자유학기에 2집중적으로 몰아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의 엄연한 존재 이유를 생각할 때, 교과수업에서 흡족히 충족되기 어려운 진로·인성교육활동, 체험활동은 일반학기에도 당연히 누려야 할 학습자의 권리입니다. 자유학기로 인해 자유학기 전·후의 교육과정이 위축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율 선택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중 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에 근거한 창의적 진로개발 수업은 현재의 인적자원으로 지도가 가능하도록 구안되어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자율 프로그램들은 교과 관련 프로그램(공작, 요리, 스포츠, 국악, 밴드, 디자인, 무용, 역사탐구, 천체 관측 등) 외 전문성이 따라야 하는 것(사진, 애니메이션, 패션, 마술, 모의창업, 미디어와 통신 등)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전면 시행 시 비전문가인 교사가 일정 부분을 담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교육기부 풍토를 주도하여 이전보다 형편이 좋아지고 있지만 기업과 공공기관의 더 적극적인 참여와 범국가적인 교육기부 인력의 구축 등 2016년 전체수요를 염두에 둔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연구 목적 상 연구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만 지나친 개방성으로 인해 본질이 흐려지거나 혼선을 빚는 일이 없도록, 2014년 희망학교 확대 시 교육혁신의 기제로서 기능할 얼마간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2) 3개년 간 이수하도록 되어있는 306시간 중 대부분을 자유학기에 집중 편성하는 경우를 말함.

### Ⅲ. 자유학기제와 수업 혁신, 그 필연성에 대하여

수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의 논의(평가와 입시제도 등)가 필요하겠지만 본 장에서는 수업의 질적 혁신으로 범위를 좁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교원이라면 누구나 일반 교육과정으로 복귀한 후 아이들에게 나타날 여러 양상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부터의 과감한 변형을 시도한 학교일수록 그 정도가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12~14시간의 자율과정이 3시간 정도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다시 축소되는 그 자체로도 별도 적응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수업마저 활동 중심의 수업에서 꼼짝없이 앉아 듣기만 해야 하는 수업으로 되돌아갔을 때 나타날 부정적인 행동양상에 대해 예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자유학기제가 수업의 혁신을 견인할 것이고 반드시 견인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덮어쓰기’ 유형은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교과 간 장벽을 허무는 융·복합의 시대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여겨집니다. 시간표 상 변형 과정으로 명명하신 ‘덧붙이기’와 ‘덮어쓰기’ 각각의 프로그램이 갖는 장점과 한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공감합니다. ‘덮어쓰기’의 실행을 위한 선택지들의 배열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크고 작은 난관과 갈등들이 예견될지라도, 잘 접근하면 수업을 변화시킬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기대도 해봅니다.

그런데 다음의 몇 가지 우려가 우리를 주저하게 합니다.

첫째, 자유학기제의 본질이 희석될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정규교과 시간표 안에서 자유학기가 추구하는 내용영역들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교과 간 협업(혹은 융합, 통합) 수업모형으로 엮어 투입된다 해도 각각의 수업에 대한 검증, 전체를 연결하는 내용 프로세스 이 두 요건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갖춰지지 않는 한, 자유학기의 교육 가치, 철학이 전체 시간표를 관통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프로그램에 맞게 짝지어진 교과들을 블록타임으로 연결하고 구성하는 물리적인 작업이 가능하고 연구자들에 의해 교수-학습과정자료가 제공된다 해도, 이것을 교실 현장에서 펼쳐 놓았을 때는 영 다른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남이 써준 지도안을 가지고 피동적으로 임하게 되는 수업으로는 아이들을 사로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유학기제와 일반학기의 동질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수업 혁신에의 요구는 비단 자유학기제 학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서 제안하신 덮어쓰기 모형은 전체 학년에 파급되어 향후 모두가 수용해야 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으리란 생각입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한 수업 혁신이 전 학년에 걸쳐 파급되어 자유학기 전·후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약하게 감지되긴 해도 수업 변화의 파장은 분명히 일고 있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표방한 창의·인성 요소의 구현 노력으로서 수 년 전부터 이미 창의인성모델학교, 창의·인성포럼, 창의경영학교, 혁신학교 등을 통한 움직임과 교과연구회 단위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만큼 했으면’ 이제 꽤 확산되어 있어야 마땅함에도,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딱딱한 지층이 두껍고 넓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왜 수업혁신의 전파력에 속도가 붙지 않는 것인가. 자료의 부족 때문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인성교육넷(<http://www.crezone.net>)에 탑재되어 있는 방대한 수업자료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끌어다 내 것으로 구조화 할 ‘여유’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방만한 행정업무 처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정체성을 잃고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이 위기의 현실로부터 교사들을 과감하게 탈출시키지 않는 한, 수업의 혁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더질 수 있습니다.

## IV.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착근 위해 ‘덜어내고, 걷어내는’ 정책적 혜안 있어야

하루 종일 학교에 있으면서 선생님과 눈맞춤 한 번 제대로 못해본 채 귀가하는 상황에서, 학교가 ‘아침에 눈뜨면 가고 싶어지는’ 곳일 리 없습니다. 앞서서도 강조했지만, 교사들이 오롯이 수업으로 돌아가서 아이들 얼굴을 하나하나 응시하며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나은 수업’에의 자발적 동기가 촉발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학습자로서 ‘좋은 수업’에 대한 욕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시대 흐름을 읽으며 타 교과와의 융합 가능한 주제를 추출하고 능동적으로 성취기준을 재정비하며 평가도구를 고민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관건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정책들이 학교 안에 들어와 있고 각각의 정책들이 물고 들어오는 업무들로 학교는 그야말로 포화상태입니다. 이걸 해결해 주어야, 꼭 필요치 않은 물건을 버리듯 기존 정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본질에서 먼 것은 걷어내야, 비로소 분명한 희망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즈음 시야에 들어온 『정리의 마법』이란 책에 나온 글귀가 제 눈엔 자연스레 이렇게 바뀌어 읽힙니다.

‘울림 없는 물건(정책)은 모두 버려라.

진짜 인생(교육)은 정리한 뒤 시작된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것저것 너무 많이 말했습니다.

혜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 자유학기제 정책의 생성, 진화, 그리고 생명의 연속성을 위한 조건

이 상 은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연구위원)





## 자유학기제 정책의 생성, 진화, 그리고 생명의 연속성을 위한 조건

이 상 은 (한국교육개발원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연구위원)

자유학기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42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라는 새로운 정책이 생명력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의 시행을 지켜보면서 일각에서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토론자는 자유학기제가 생명을 받아하는 한가운데 서서 더욱 건강하게 제 취지를 발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 동안 다양한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발표자 분들의 발표 내용에 비추어 몇 가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자유학기제의 시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자유학기제라는 정책이 도태되지 않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화하고 생명의 연속성을 얻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발표자의 논의에 비추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황규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경험한 자유학기제 정책의 속성 중 하나는 '불확정성'입니다. 다만, 이때의 불확정성은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취지는 분명하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그 방법상의 문제는 어느 한 가지로 획일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세 연구학교의 사례 발표가 각 학교의 맥락에서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나름의 방법을 모색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자유학기제가 부여하는 이러한 자율성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매뉴얼 따라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되는 단편적인

일에서 벗어나 무엇이 가장 적합한 방법일지를 고민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느끼는 선생님들이 없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토론자가 자유학기제 정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그 희망적인 미래를 본 것도 일부 연구학교의 선생님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은 꺼져가는 학교교육의 생명력을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시 지 피고자 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분들은 위에서 강요하는 것이니까 마지못해서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교교육의 희망적인 출구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유학기제라는 정책 이 생명을 받아하는 시기인 만큼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러한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적 걸림돌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유학기제는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이요, 그 모습이 고정되지 않은 불확정성을 갖는 정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가 생각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은 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못지않 게 무조건적인 불신입니다. 비단 자유학기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육 정책 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현재의 학 교교육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에는 냉소적인 눈빛만을 견지한다면 우리의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실패의 아픈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토대로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동의의 의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이 의미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면, 설사 현재 의 모습이 조금 미약하다 하더라도 더 건강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과 분별력 있는 협조가 자유학기제가 진화를 거듭하며 생명력을 갖는 데 요구되는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자유학기제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준다는 명목 하에 좁은 의미의

진로탐색 활동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꿈과 끼를 찾아주는 방법상의 초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은 그릇된 지적이 아닙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초기 구상은 그 방법을 진로탐색 활동의 확대라고 여겨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황규호 교수님의 원고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세 연구학교의 사례에서 진로교육이 강화된 모습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이 시작되고 난 후에도 과연 무엇이 학생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계속되었고, 그 가운데 자유학기제는 조금씩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좁은 의미의 진로탐색 활동이 아니라, 종래의 기본 교과 수업의 개선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진로탐색 활동을 포함한 여타의 자율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도록 하는 것이 교과 수업을 제외한 특별한 진로활동을 통해서만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엽적인 접근 방법임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교과를 잘 배우는 것이 그들의 꿈과 끼를 찾아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유학기제는 크게 두 측면에서 접근하는 바, 하나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통해 기존의 교과 수업을 수업답게 바꾸어 가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종래의 교과 수업에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여타의 활동을 자율과정을 통해 구현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바꾸자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과 수업을 불충실하게 다루면서 여러 가지 화려한 활동으로 도배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 실패로 돌아간 여러 극단적 정책 사례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일이 결코 교과 수업과 무관하지 않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교과를 교과답게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그들의 '꿈과 끼'를 찾도록 해 주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유학기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지금까지 교과를 가르치는 일이 단편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꾸역꾸역 집어넣고 시험에서 뺄어 내는 식의 방식으로 변질된 데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 교과의 진가를 맞출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지나치게 전통적인 교과 학습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학습 내용과 활동을 학생 선택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의 자율과정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자유학기제 정책의 진화 과정에서 고안된 이러한 두 축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비록 쉽지 않지만, 자유학기제가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 것입니다. 교과 수업을 어떻게 바꿀지, 자율과정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등의 세부 사항들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오늘 발표에서 나타난 세 학교의 사례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자유학기제가 전면 확대 실시된다고 볼 때, 일부 학교가 아닌 많은 학교에서 적용하기에 수월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연구학교의 사례를 통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기본교과 시수 감축에 대한 것입니다. 황규호 교수님이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 분석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그리고 오늘 세 연구학교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부분의 연구학교가 기본 교과 시수를 감축하고 그 감축한 시수를 자율과정 운영에 활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과 시수 감축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여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쟁점으로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특정 교과의 시수 감축으로 인해 해당 교과 교사들의 불만과 저항, 교사들 간의 반목, 차후 교사 배정 문제, 시수 감축이 해당 교과의 입지 약화로 이어진다는 학계의 반발, 그리고 학력 저하 등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목도함으로써 우리는 학교 교육과정에 공고하게 자리잡은 교과의

시수 변경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시수 감축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이것은 자유학기제가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토론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자유학기제에서 학교 교육과정 편제표 상에 교과 시수가 감축되는 것으로 표기되더라도 사실상 실제적으로 해당 교과의 수업 시간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신길중학교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국영수 등 주요 교과의 감축 시수를 자율과정에 배치하되 이 시간에는 해당 교과연계 프로그램을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 선택프로그램으로 고안해서 하는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전 외삼중학교의 경우에도 학생 선택프로그램은 시수를 감축한 교과 교사가 해당 교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교과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고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수가 적은 소위 비주류 교과만으로 자율과정이 구성되는 데에서 오는 부작용을 막고, 자율과정은 모든 교과 교사들의 참여로 구성되며, 교과 수업과의 관련 속에서 진행됨으로써 성적 하락의 우려로부터도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부 연구학교 선생님들이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리되, 현실적인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그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많은 고심 끝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황규호 교수님께서 향후 자유학기제의 대안적 접근으로 제시한 '덮어쓰는 방식'과 일맥상통한다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요컨대, 자유학기제가 학교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단순한 교과 시수 감축이 갖는 위험과 갈등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것은 기본교과 과정과 자율과정의 연계성을 찾는 것, 그럼으로써 두 과정이 상호보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자유학기제가 현장에 적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 또한 우려되는 면이 없지는 않는 바, 자유학기제가 교육과정의 표면상의 편제와 명목상의 운영이 아니라, 그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과와 연계된 자율과정이 말만 자율과정

이지 종래의 교과 수업과 다를 바가 없다거나, 혹은 자율과정이 단편적인 활동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향후 자유학기제가 풀어가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가 정권의 교체로 인해 생성과 소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미있는 변화를 일으키는 정책으로서 생명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자유학기제가 교육혁신을 추구하는 개혁안으로서 무르익을 수 있는 시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아래로부터 위로 수렴되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황규호 교수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기존의 교육혁신 사례로부터 경험한 '개혁 피로감'이나 '개혁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의미있는 취지와 의도를 지닌 정책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짧은 생명력을 가지는 것을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정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곱씹어 보고 그 실천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급박한 추진 속에 겉으로만 생색내는 식으로 집행되는 정책은 마치 그 뿌리가 토양에 강건하게 자리잡지 못해서 쉽게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여유는 다름 아닌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자유학기제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 위로부터 아래로의 일방적인 강요와 통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의견을 수렴하는 관계적 지형이 형성되는 속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자유학기제가 이상적인 개혁안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자생적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생명의 연속성을 갖도록 만드는 필요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료 CRM 2013-118-1

---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

발행	2013년 9월
발행인	백 순 근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바우뒀로 1길 35(우면동) 전화: (02) 3460-0114 팩스: (02) 3460-0121 <a href="http://www.kedi.re.kr">http://www.kedi.re.kr</a>
인쇄	동진문화사 (02) 2269-4783

---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